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 전제유발자 연구

## 강한 전제유발자와 약한 전제유발자의 담화 효과를 중심으로

# L'étude sur les déclencheurs de la présupposition

## l'effet du discours des déclencheurs forts et faibles de la présupposition

2020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어학전공

진 현 경

# 전제유발자 연구

## 강한 전제유발자와 약한 전제유발자의 담화 효과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최 윤 선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어학전공
진 현 경

진현경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1월

위 원 장 _____ 장 재 성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이 성 헌 _____ (인)

위 원 _____ 최 윤 선 _____ (인)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전제유발자(déclencheur de la présupposition)유형 분류를 바탕으로 전제유발자의 강도에 따라 강한 전제유발자(déclencheur fort de la présupposition)와 약한 전제유발자(déclencheur faible de la présupposition)로 분류하고 각각의 차별화된 담화 효과를 광고 문구 분석을 통해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제와 전제유발자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전제유발자의 강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전제유발자의 유발 요소에 따라 의미 속성 전제유발자와 통사 구문 전제유발자로 분류하고, 이 분류를 바탕으로 전제유발자의 강도에 따른 분류를 시행한다. '전제 미지 문맥(Explicit Ignorant Context)'을 분류 기준으로 각각의 전제유발자를 분석한 후, 강한 전제유발자와 약한 전제유발자로 분류한다. 그리고 통사 기제에 의해 유발된 전제는 주로 강한 전제유발자로부터 유발됨을 보이고 전제유발자의 유형과 강도의 상관관계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광고 문구에 사용된 전제유발자를 분석함으로써 전제유발자의 강도 차이로부터의 차별화된 담화 효과 가정한 후, 이들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하나의 광고 메시지를 구성하는지 살펴본다. 강한 전제유발자는 확정적 전제를 유발하여 광고주의 책임 하에 객관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반면, 약한 전제유발자는 선택적 전제를 유발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담화 효과를 나타냄을 보인다.

주요어 : 전제유발자, 전제유발자의 강도, 강한 전제유발자, 약한 전제유발자, 담화 효과

학번 : 2017-28941

# 목 차

서론 ····· 1

제 1 장 전제와 전제유발자 ····· 3
1.1. 전제의 정의 ····· 3
1.2. 전제의 속성 ····· 4
1.2.1. 부정 하에서의 일관성 ····· 5
1.2.2. 취소 가능성 ····· 6
1.3. 전제 연구의 흐름 ····· 8
1.3.1. 의미론적 관점의 연구 ····· 9
1.3.2. 화용론적 관점의 연구 ····· 12
1.3.3. 전제 유발 요인 개념 도입의 필요성 ····· 16
1.4. 전제유발자 ····· 17
1.4.1. 정의와 선행연구 ····· 17
1.4.2. 전제 유발 요소의 다양성 ····· 21

제 2 장 전제유발자의 유형과 강도 ····· 23
2.1. 전제유발자의 유형 ····· 23
2.1.1. 의미 속성 전제유발자 ····· 23
2.1.2. 통사 구문 전제유발자 ····· 31
2.2. 전제유발자의 강도 ····· 37
2.2.1. 전제유발자와 강도 ····· 37
2.2.2. 강한 전제유발자 ····· 40
2.2.2.1. 분열 강조 구문 ····· 41
2.2.2.2. 감정적 사실동사 ····· 42

2.2.2.3. 한정 구문 ····· 43
2.2.2.4. 함축 부사 ····· 45
2.2.2.5. 비한정적 관계절 ····· 46
2.2.2.6. 비교 구문 ····· 47
2.2.2.7. 시간절 ····· 48
2.2.2.8. 반복성 어휘 ····· 48
2.2.2.9. 반사실적 조건절 ····· 49
2.2.2.10. 의문문 ····· 50
2.2.3. 약한 전제유발자 ····· 51
2.2.3.1. 인지적 사실동사 ····· 51
2.2.3.2. 상태변화 어휘 ····· 53
2.2.3.3. 성취 동사 ····· 54
2.2.3.4. 의문문 ····· 55
2.3. 교차적 분석: 전제유발자의 유형과 강도 ····· 56

제 3 장 전제유발자 강도에 따른 담화효과 ····· 60
3.1. 광고 텍스트에서의 전제유발자와 담화효과 ····· 60
3.1.1. 강한 전제유발자가 사용된 광고 ····· 61
3.1.2. 약한 전제유발자가 사용된 광고 ····· 68
3.1.3. 다양한 전제유발자가 사용된 광고 ····· 72
3.2. 강한 전제유발자와 약한 전제유발자의 담화효과 77

제 4 장 결론 ····· 79

참고문헌 ····· 81

Résumé ····· 85

# 표 목 차

[표 1] 전제유발자와 전제의 유형 ····· 19
[표 2] 의미 속성 전제유발자 유형 ····· 30
[표 3] 통사 구문 전제유발자 유형 ····· 36
[표 4] 전제유발자 유형과 강도 ····· 57
[표 5] 전제유발자 유형과 강도의 교차 분석 ····· 58
[표 6] [ 사진 1 ] 광고 문구 정리 ····· 61
[표 7] [ 사진 2 ] 광고 문구 정리 ····· 63
[표 8] [ 사진 3 ] 광고 문구 정리 ····· 66
[표 9] [ 사진 4 ] 광고 문구 정리 ····· 69
[표 10] [ 사진 5 ] [ 사진 6 ] 광고 문구 정리 ····· 70
[표 11] [ 사진 7 ] 광고 문구 정리 ····· 72
[표 12] [ 사진 8 ] 광고 문구 정리 ····· 74
[표 13] 전제유발자 담화효과 분석 ····· 77

# 사 진 목 차

[사진 1] 강한 전제유발자가 사용된 광고 1 ····· 61
[사진 2] 강한 전제유발자가 사용된 광고 2 ····· 63
[사진 3] 강한 전제유발자가 사용된 광고 3 ····· 66
[사진 4] 약한 전제유발자가 사용된 광고 1 ····· 68
[사진 5] 약한 전제유발자가 사용된 광고 2 ····· 70
[사진 6] 약한 전제유발자가 사용된 광고 3 ····· 70
[사진 7] 다양한 전제유발자가 사용된 광고 1 ····· 72
[사진 8] 다양한 전제유발자가 사용된 광고 2 ····· 74

# 서 론

이 논문의 목표는 전제(présupposition)를 유발하는 요인인 전제유발자(déclencheur de la présupposition)의 유형 분류를 바탕으로 전제 유발자의 강도에 따라 강한 전제유발자(déclencheur fort de la présupposition)와 약한 전제유발자(déclencheur faible de la présupposition)로 분류하여 각각의 담화효과까지 살피는 것이다.

전제는 발화 시, 발화 참여자 간에 당연히 참인 것으로 간주되는 공유 믿음 또는 선행 조건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추론 내지는 명제이다.[1] 어떠한 문장이나 발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즉, 전제의 사용과 이해는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전제는 발화를 구성하는 어휘나 구문에 의해 유발되는데, 이러한 언어적 기제를 전제유발자라 한다. 전제유발자는 반복성, 사실성, 등의 의미 속성일 수도 있으며, 분열구문, 관계절과 같은 통사 기제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기존 전제 연구는 전제의 취소가능성이나 투사문제 등과 같은 전제 현상에 치중되어 왔다.[2]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전제 현상의 개별적인 속성을 기술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현상의 원인에 대한 완전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각으로부터 전제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전제유발자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제유발자의 종류를 분석하여 나열하는 연구[3]와 더불어 전제 현상을 전제 유발자의 속성과 결부시

---

1) Huang, Y. 2006. *Pragma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이혜윤 역, 2009, 『화용론』, 한국외국어대출판부). p.81.

2) 전제의 취소 가능성과 투사 문제에 대한 논의로는 Beaver (1997), Gazdar (1979), Stalnaker (1973, 1974, 1999), Karttunen (1973), Horn (1996), Heim (1983), Levinson (1983)을 참조.

3) Levinson(1983), Yule(1996), Karttunen(1974) 등은 전제유발자의 종류를 분석하여 나열하였다.

켜 설명하려는 경향이 증가하였다.[4] 이는 전제의 대표적인 속성인 취소 가능성이 항상 일정하지 않으며, 전제유발자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면서부터이다.[5] 그 결과 이러한 차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면서 개별적인 전제유발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 동향과 더불어 각각의 전제유발자의 취소가능 정도를 분석하여 강한 전제유발자와 약한 전제유발자로 분류하고자 한다. 전제유발자의 강도 차이는 결과적으로 전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담화 상에도 서로 다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고 언어에서 사용된 전제유발자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광고 언어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간결한 문구를 통해 집약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광고의 속성으로 인해 전제가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1장에서는 전제와 전제유발자에 대한 개괄적인 정의와 대표적인 속성, 그리고 전제 연구의 흐름을 소개하고, 전제유발자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한다. 2장에서는 전제유발자의 유형과 강도에 따른 분류를 바탕으로 이들의 관계를 살필 것이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전제유발자의 강도를 바탕으로 광고 언어에서의 담화효과를 기술한다.

---

4) 전제 유발자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Zeevat (2002, 2003), Abusch (2002, 2005, 2010), Abrusán (2011, 2016), Romoli (2015) 참조.

5) Abrusán, M. 2016. Presupposition cancellation : explaining the 'soft-hard' trigger distinction. *Natural Language Semantics.*, p.166-167. 전제 취소 현상은 전제 유발자의 성격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전제가 취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제유발자들 간의 차이를 기술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 본 론

## Ⅰ. 전제와 전제유발자

이 장은 전제와 전제유발자에 대한 이론적인 개관을 살피는 장으로, 1.1에서는 기본적인 전제의 정의, 1.2에서는 전제의 속성, 1.3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전제 연구의 흐름, 그리고 1.4에서는 전제유발자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 1.1. 전제의 정의

인간은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문장 형태로 발화한다. 발화 내용은 일반적으로 명제와 전제 두 가지 층위로 구분된다.[6] 명제(posé)란 발화에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단언(assertion)으로 새로운 정보이고, 전제(présupposition)란 발화에 내포되어 있으며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발화를 통해 사실로 간주되는 정보이다. 아래 (1)와 같은 문장이 발화되었다고 가정해보자.

(1) *Pierre a cessé de fumer.*
Contenu posé (assertion): 《Pierre a cessé de fumer》
Contenu présupposé (présupposition): 《Pierre fumait auparavant》

위 발화 (1)는 두 가지 정보를 전달한다. 명제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전달되는 정보는 “Pierre가 담배를 끊었다”라는 것이고, 전제 차원에서 추정되는 정보는 “Pierre가 담배를 피웠었다”이다. 이 때, “Pierre가 담배를 피웠었다”는 전제가 사실일 경우에만 “Pierre가 담배를 끊었다”는 명제의

6) 최재호. 1995. 「불어학 : 전제의 기능과 특성」, 『불어불문학연구』, Vol.30(2), p.1103

내용의 참, 거짓을 논할 수 있다. 전제의 내용이 거짓이라면, 즉, Pierre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었다면 해당 발화의 진위판단이 불가능해진다. 위 예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전제는 한 발화가 진리가치를 지니기 위해 항상 사실이어야 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7]

> C'est une unité de contenu qui doit nécessairement être vraie pour que l'énoncé qui la contient puisse se voir attribuer une valeur de vérité.
> (전제란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발화가 진리가치를 갖기 위해 필연적으로 참이어야 하는 내용요소를 말한다.)

위 정의에 의하면 전제란 문장의 발화에서 당연히 참인 것으로 간주되는 추론 내지는 명제이다.[8] 전제는 발화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담화의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발화 안에 내재되어 발화행위를 통해 청자에게 분명히 전달된다. 청자는 발화의 순간에 두 층위의 정보를 동시에 전달받으며, 전제된 내용은 자연스럽게 참으로 받아들인다.

이와 같은 전제는 발화의 통사 구조나 어휘 항목에 의해 유발된다. 전제를 유발하는 이러한 언어적 장치를 전제 유발자(déclencheur de la présupposition)라 한다. 본 장은 전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기술하는 장이므로 전제 유발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4장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 1.2. 전제의 속성

전제는 발화의 언어적 장치들에 의해 내재되어 있어 발화와 동시에 참으로 간주되는 내용으로, 명제와 구별되는 정보의 층위이다. 전제는 명제

---

7) Kerbrat-Orecchioni, C. 1986. *L'implicite.* Paris, Armand Colin. p. 27
8) Huang, Y. *op.cit.*, p. 81

와 구분되는 뚜렷한 속성을 지니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으로는 **부정 하에서의 일관성**과 **취소 가능성**이 있다.

### 1.2.1. 부정 하에서의 일관성

'부정 하에서의 일관성(test de la négation)'이란, 명제가 부정되는 경우에도 그 속에 내재된 전제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발화를 부정한다면 명제 차원의 내용은 변하지만 전제는 명제를 부정해도 유지된다. 전제는 발화의 어휘항목이나 통사구조에 의해 생성되기에 발화를 부정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남아있다. 이 속성을 형식적으로 나타낸다면 아래와 같다.[9]

문장 S의 발화가 명제 p를 전제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a. S가 참이면, p가 참이다.
b. S를 부정하더라도, p는 여전히 참이다.

(2) a. Pierre a cessé de fumer.
b. Pierre n'a pas cessé de fumer.
≫Pierre fumait auparavant.

발화 (2a)는 "Pierre가 담배를 끊었다"는 의미이고, "Pierre가 예전에 담배를 피웠다"라는 전제를 지닌다. (2a)를 부정한 발화 (2b)의 경우, "Pierre는 담배를 끊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명제 층위의 내용은 변한다. 하지만 부정문(2b)에서도 긍정문에서 전제되었던 내용은 유효하다. 즉, "Pierre가 담배를 끊지 않았다"는 명제도 "Pierre가 담배를 피웠다"는 전제를 지닌다. 이와 같이 어떤 명제를 부정하더라도 전제는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부정 하에서의 일관성'이다. 전제는 자신을 유발하는 언

9) Ibid., p. 84

어적 장치에 견고하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발화가 부정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전제가 절대적으로 취소 불가한 것은 아니다. 전제는 배경적 가정들, 담화문맥과 충돌을 일으킬 경우 무효화된다.[10]

### 1.2.2. 취소 가능성

전제는 일반적으로 단언이 부정되었을 경우에도 유효하게 유지되지만, 화자, 청자의 공동적 믿음, 일상적인 배경 지식과 담화상의 문맥과 모순될 경우 취소될 수 있다. 전제가 취소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실동사가 사용된 부정문의 주어가 1인칭인 경우와 명제가 일반적인 세계의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다.[11]

#### i. 사실동사 부정문의 주어가 1인칭인 경우

사실동사는 인지동사로도 불리며 목적어에 해당하는 사건을 지각했음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사실동사에는 savoir, regretter, réaliser, découvrir등이 있다. 사실동사의 경우, 화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없다면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사실동사의 사용은, 역으로, 미리 알고 있는 정보가 발화에 내포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 때, 화자가 알고 있는 정보는 보어절의 내용으로, 사실동사 구문은 보어절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한다.[12] 그런데 이 사실동사 구문을 부정한 후 주어를 1인

---

10) Ibid., p.85

11) Ibid., p. 86. 전제 취소를 야기하는 요인은, i) 사실동사 부정문의 주어가 1인칭인 경우, ii) 전제가 배경적 지식이나 실제 세계의 지식과 모순될 경우, iii) 전제가 문맥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iv) 여러 가능성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축소 논증의 경우, v) 뒤따라 나오는 si절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vi) 사실 동사가 나타나는 문맥의 경우 등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으로 i)과 ii) 두 가지 경우만 다룰 것이다.

12) Kiparsky, P. & Kiparsky, C. 1971. *Fact.* In D. Steinberg and

칭으로 바꾼다면 보어절의 내용은 더 이상 전제되지 않는다. 아래는 사실동사 savoir가 유발하는 전제와, 부정문의 주어가 1인칭일 경우에 전제가 취소되는 예이다.

(3) a. Jean$_i$ sait qu'il$_i$ a fait une erreur.
≫ Jean a fait une erreur.
b. Jean$_i$ ne sait pas qu'il$_i$ a fait une erreur.
≫ Jean a fait une erreur.
c. Je ne sais pas qu'il a fait une erreur.
~≫ Jean a fait une erreur.

Savoir와 같은 사실동사는 보어절의 내용을 전제한다. 본래 전제된 내용은 단언이 부정되어도 유효하다. 위 예시에서 (3a)를 부정한 (3b)에도 "Jean이 실수를 했다"는 전제는 유지된다. 다만, (3c)에서와 같이 1인칭 주어가 쓰인 사실동사 부정문의 경우, 전제는 화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취소된다.

## ii. 명제가 실제 세계의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전제는 배경적 지식이나 실제 세계의 지식과 모순될 경우 사라진다. 이 때, 배경적 지식이나 실제 세계의 지식이란,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믿음 또는 일반적인 상식을 일컫는다.

(4) Marie a obtenu un poste de professeur adjoint *avant d'*avoir terminé son doctorat.
≫ Marie a terminé son doctorat.

---

L.Jakobovits, eds. *Semantics : An Interdisciplinary Reader in Philosophy Linguistics and Psycholog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345-369

위 예문은 “Marie가 박사학위를 받은 시점 이전에 조교수직에 부임했다”는 의미로, 시간 접속사 *avant de*에 의해 “Marie가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전제가 유발된다. 시간접속사 *avant de*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의 발생 순서에 대한 정보를 내포한다. *Avant de*는 의미상으로 자신의 뒤에 나오는 사건의 발생을 전제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이 사건들의 선후관계가 일반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 전제는 취소된다. 아래 예는 전제와 명제의 내용이 일반 세계의 지식과 모순을 일으켜 취소되는 경우이다.

(5) Marie est morte *avant d'*avoir terminé son doctorat.
~≫ Marie a terminé son doctorat.

위 예문 (5)의 경우, 앞선 예와 동일하게 시간접속사 *avant de*가 사용되었지만 “Maire가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죽었다”라는 명제는 “Marie가 박사학위를 받았다”라는 전제를 지니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Marie가 죽은 이후에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제가 실제 세계의 상식과 모순될 경우 전제는 취소된다.

## 1.3 전제 연구의 흐름

전제 현상은 최근 50년 동안 논리학, 철학, 언어학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온 주제이다. 전제 연구 초기의 언어학자들은 전제를 의미론적 관점에서 기술하고자 하였다.[13] 그러나 위에서 다룬 전제 취소와 같이 의미론적 관점으로 설명이 불가한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제에 대한 화용론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14] 본 장에서는 전제

13) 전제 현상을 의미론적 관점에서 연구하였던 학자로는 Frege(1975), Strawson(1974), Russell(1905) 등을 참조.
14) Stalnaker(1974), Grice(1975), Austin(1962), Karttunen(1973, 1974) 등은 전

연구의 축을 이뤄왔던 두 관점과 최근 전제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 1.3.1. 의미론적 관점의 연구

의미론적 전제란 논리학을 바탕으로 문장들 간의 진리조건, 논리형태, 어휘의 의미적, 문법적 속성을 바탕으로 전제를 해석하는 것이다. 전제에 대한 의미론적 관점을 고수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Gottlob Frege(1975)와 P. F. Strawson(1974)이 있다. Frege는 '어떤 단언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사용된 고유명사는 항상 실제 세계에 구체적인 지시체(référent)를 갖는다는 분명한 전제가 있다'[15]고 아래와 같이 문제제기를 하며 보며 '전제'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 If anything is asserted there is always an obvious presupposition that the simple or compound proper names used have a reference. If one therefore asserts 'Kepler died in misery', there is a presupposition that the name 'Kepler' designates something.
>
> (단언문은 항상 고유명사가 지시체를 지닌다는 명백한 전제를 지닌다. 따라서 'Kepler가 불행하게 죽었다'는 단언에는 Kepler라는 이름이 무언가를 가리킨다는 점을 전제한다.)

(6) a. Kepler est mort dans la misère.
≫ Le nom Kepler dénonce un individu.
b. Kepler n'est pas mort dans la misère.

---

제의 의미론적 분석의 한계를 기술하고 화용론적 관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15) Frege, G. 1975. *On Sense and Reference*. In Davidson & Harman, (eds). p.116-128

≫ Le nom Kepler dénonce un individu.

Frege에 의하면 예문(6a)이 발화될 경우, 고유명사 Kepler가 가리키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생긴다. (6b)와 같이 단언이 부정문이 되어도 전제는 유지된다. (6b)에서도 고유명사 Kepler에 대한 지시체는 변함없이 존재한다. 게다가 Frege는 위 전제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즉, 만약 Kepler가 지시체를 가리키지 않는다면, 단언(6a)나 (6b)는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Frege의 의미론적 전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문장 S1이 S2를 의미적으로 전제하는 경우,
(i) 지시적 표현은 전제를 수반한다.
(ii) 하나의 문장과 그것의 부정은 똑같은 전제를 공유한다.
(iii) 하나의 문장 또는 단언이 참 또는 거짓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전제는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

Strawson은 Frege의 전제에 대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의미론적 전제의 개념을 확고히 수립한다. Frege가 주장한 전제의 '부정 하에서의 일관성'에 동의하면서 명제의 성립 조건으로 전제가 참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7) Le roi de Frace est sage.

위와 같은 단언을 할 경우, 한정기술(description défini)[16]로 인해 '프

16) Russell, B. 1905. *On denoting*. Mind 14. 479-493. Russell은 한정 기술에 대해 논리적 측면에서 의미론적 분석을 제시한다. Russell에 의하면, "Le roi de France est chauve"라는 문장은 ① 존재 조건(existential condition), ② 유일성 조건(uniqueness condition), ③ 명제 서술(proposition predication)에 해당하는 세 가지 명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Strawson(1950)은 위 세 명제가 동등하게 결합되는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랑스의 왕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유발되어야 한다. 하지만 프랑스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전제는 거짓이 된다. Strawson은 이러한 경우, 거짓 전제를 지닌 단언에 대한 참, 거짓을 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제가 참이라면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일 수 있지만, 전제가 거짓이라면 명제의 진리치를 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명제 자체의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즉, 그는 전제를 명제의 진리치를 판단하게 해주는 선행 조건으로 규정한다.

Frege와 Strawson의 주장을 바탕으로 의미론적 전제의 개념을 형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문장 S1이 S2를 의미론적 전제하는 경우

a. S1이 참이면 S2는 참이다.

b. S1이 거짓이면 S2는 항상 참이다.

c. S2가 거짓이면 S1은 참도 거짓도 아니다.

다시 말해, 의미론적 전제는 전제 현상을 전적으로 문장의 진리조건과 어휘, 문법적 요소에 의거하여 기술하는 것으로 논리적 전제라고도 한다. 진리조건에 의해 정의되기에 의미론적 전제는 절대적인 제약이며 부정될 수 없는 것으로 정리된다. 하지만 이는 발화의 맥락, 발화가 성립되기 위해 충족되어져야 할 조건들, 대화 참여자들의 문화적, 사회적 지식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발화에서 나타나는 전제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제를 하나의 논리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발화문맥 상에서 한 문장이 적절하게 사용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보는 화용론적 전제 개념이 등장하였다.

---

의문을 제기한다. 한정 기술이 지니는 존재 조건과 유일성 조건을 전제, 즉, 진술의 참 또는 거짓에 대한 선행조건으로 간주하고, 명제 서술과 다른 층위에 위치시킨다.

### 1.3.2. 화용론적 관점의 연구

화용론적 전제는 발화문의 진리 조건적 내용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의사전달을 하고자 하는 화자의 주관성, 믿음, 추정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전제에 대한 화용론적 접근은 H. P. Grice(1967)의 대화 함축 이론[17]에서 착안한 것이다. 대화 함축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화자의 목표, 관심과 의도이다. 화자가 발화하는 것과 함의하는 것의 층위가 구분되며, 화자가 함의 하는 바는 의사소통 도중에 청자에 의해 자연스럽게 추정된다고 보았다. 전제에 대한 화용론적 관점을 주장했던 학자들로는 전제를 문맥과 대화 참가자들의 공유된 지식의 총체로 보았던 Robert C. Stalnaker(1974)와 Lauri Karttunen(1974) 등이 있고, 전제를 담화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의 집합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Oswald Ducrot(1968)가 있다. 본 장에서는 대표적으로 Stalnaker와 Ducrot의 주장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다.

Stalnaker는 Grice의 의사소통 이론을 바탕으로 전제에 대한 화용론적 분석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그는 전제를 화자가 발화를 할 경우 당연시

---

17) Grice의 대화 함축 이론(conversational implicature theory)은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추론들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기술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 참가자들이 준수해야 할 협력의 원칙들을 제시한다. Grice는 일반적인 대화 협력 원칙을 설정하고, 대화를 지배하는 원리로서 4가지 대화 격률(maxims of conversation)을 제안한다.

- 협력 원칙(The co-operative principle) : 대화가 진행되는 각 단계에서 대화의 방향이나 목적이 요구하는 대로 협조해야 한다.

i) 질의 격률(The maxim of Quality) : 거짓을 말하지 말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것을 말하지 말라.

ii) 양의 격률(The maxim of Quantity) : 대화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라. 필요 이상을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iii) 관계의 격률(The maxim of Relevance) : 관련성 있는 발화를 하라.

iv) 양태의 격률(The maxim of Manner) : 명료하게 말하라. 모호성, 중의성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발화하라.

되는 화자와 청자 간의 공유된 배경적 믿음(connaissance mutuelle)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전제를 통해 의사소통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화자와 청자 간에 공유된 배경적 지식이 풍부할수록 의사소통이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전제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발화 맥락(contexte)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제를 화자(locuteur)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Une proposition P est une présupposition pragmatique d'un locuteur dans un contexte donné si le locuteur assume ou croit que P, assume ou croit que son interlocuteur assume ou croit que P, et assume ou croit que son interlocuteur reconnaît qu'il fait ces hypothèses, ou a ces croyances.

(화자가 명제 P라고 추정하거나 믿고, 화자가 자신의 대화 상대방이 명제 P를 추정하거나 믿는다고 추정하거나 믿으며, 그 대화 상대방이 이 추정과 믿음에 대해 인지한다고 추정하거나 믿는 경우 명제 P는 화자의 화용적 전제이다.)

(Stalnaker, 1997)

따라서 화용적 전제란 화자의 배경적 믿음(croyance d'arrière-plan)의 총체이다. 화자가 이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청자 또한 동일한 믿음세계를 지니고 있다고 믿거나 추정될 경우, 화용적 전제의 정의가 성립한다. 모든 대화는 대화 참가자들에 의해 공유된 또는 공유된다고 추정되는 배경적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은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화자는 이 믿음에 의거하여 발화하게 된다. Stalnaker는 전제를 화자가 보다 더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화자의 언어적 장치(disposition du locuteur)로 보았다.

Ducrot는 전제를 담화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의 총체로 정의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전제 현상을 설명한다. 의미론적 전제에게 담

화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서의 전제의 진리 값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Ducrot에게 있어서 전제란, 참, 거짓을 논하는 대상이 아니라 담화의 차원에서 담화의 일관성(cohérence)을 위한 조건으로 보았다. 특히, 질문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질문과 대답이 일관성이 있으려면, 대화 참가자들이 동일한 전제를 바탕으로 발화를 해야 한다. 화자가 제기하는 질문의 전제가 청자의 대답에도 유지되어야 일관성 있는 적절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래 예를 보자.

(8) *Est-ce que Pierre écrit des poèmes?*
a. Non, (Pierre n'écrit pas) Max l'écrit.
b. ?? Non, Max écrit des romans.

의문문(8)를 발화하는 화자는 'Pierre écrit ou n'écrit pas des poèmes'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질문을 던진다. 이 때, (8a)와 같이 해당 전제가 대답에도 유지된다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흐르게 된다. 반면, (8b)에서와 같이 질문의 전제와 무관한 대답을 하게 되면 대화는 일관성이 결여되고 부적절해진다.

다시 말해, Ducrot는 의미적 현상으로 국한되었던 전제를 담화 규칙에 의거하여 담화를 구성하는 기본 조건으로 규정하였다. 담화에서 전제는 담화의 연계[18]에 있어서 일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절한 담화를 가능하

18) Ducrot(1991: 81)의 담화 연계 법칙(loi d'enchaînement)은 전제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담화의 연계법칙에 의하면, 두 발화가 연계될 경우, 이 연결은 전제와는 무관하며 두 단언된 명제에만 관련된다. Ducrot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Lorsque A est enchaîné, par une conjonction de coordination ou de subordination, ou par un lien logique implicite, à une autre énoncé B, le lien ainsi établi entre A et B ne concerne jamais ce qui est présupposé, mais seulement ce qui est posé par A et par B"

(A라는 문장의 의미작용의 한 부분인 X가 서론이나 결론에 해당하는 추론 작용에 사용되어질 수 없다면, X는 A에 의해 전제된다.)

게 해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제에 대한 두 관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의미론적 관점이 전제를 언어 외적인 요소들을 배제한 채, 어휘의 의미, 문장 간의 관계, 논리 관계 등 순수하게 언어학적인 장치에 의해 유발되는 정보로 보는 반면, 화용론적 관점은 실제 담화에서의 전제는 결코 진위 개념으로만 따질 수 없으며 발화의 배경이나 앞뒤의 상황, 화자의 의도 등 이른바 화용론적인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화용론적 전제 연구가 의미론적 전제 연구와 배타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보적이라는 점이다. 발화문에서 화용적 전제가 작동하는 과정에는 그 기저에 의미적 전제가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두 전제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발화문의 의미를 뒷받침하게 된다.[19] 그러므로 전제란 하나로 설명되는 단일한 현상이 아니라 여러 의미, 화용 원리들의 상호작용이 얽힌 현상이므로 전적으로 의미론적이거나 전적으로 화용론적이지 않다.[20] 따라서 전제 현상을 분석할 때는 이 두 관점을 분리해서 살피기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지금까지의 전제 연구는 복합문에서의 전제 투사문제나 전제의 취소문제에 치우쳐 이루어져왔다.[21] 상대적으로 전제 현상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행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연구가 덜 된 전제유발자(전제를 유발하는 언어적 장치)에

---

가령, “J’ai cessé de fumer”란 문장은 “Je fumais auparavant”을 전제하고, “Je ne fume pas actuellement”을 단언한다. 해당 문장에 원인이나 결과를 보여주는 종속절을 덧붙인다고 하였을 때, 이는 명제 차원의 정보와 연계되는 것이지, 전제 차원의 내용에 연계될 수 없다. 주어진 문장에 “parce que le prix des cigarettes a beaucoup trop augmenté (명제 내용에 대한 원인)”라고 덧붙일 순 있지만, “parce que les cigarettes ne coûtaient pas cher(전제 내용에 대한 원인)”를 연계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19) 최윤선. 2013. 「전제를 이용한 광고의 현실 재구성 전략」, 『불어불문학연구』, Vol.95, p.485

20) Huang, Y. op.cit., p.111

21) 전제의 취소 가능성과 투사 문제에 대한 논의로는 Beaver (1997), Gazdar (1979), Stalnaker (1973, 1974, 1999), Karttunen (1973), Horn (1996), Heim (1983), Levinson (1983)을 참조.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제유발자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이들이 사용된 광고 담화를 분석하고 창출하는 담화효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광고언어는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자극해야 하는 뚜렷한 목표를 위해 가장 집약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설득의 언어이다. 따라서 명시적이지 않은 정보인 전제의 사용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래 전제유발자는 전제를 유발하는 어휘 또는 통사구조로, 의미론적 전제 연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전제 유발자가 유발하는 전제가 절대적이지 않고 그 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의거하여 전제유발자를 전제를 유발하는 방식과 유발된 전제의 강도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제 2장에서는 다양한 전제유발자의 종류를 유형화할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유발자의 강도를 살피고, 그에 따른 담화효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기술하고자 한다.

### 1.3.3. 전제 유발 요인 개념 도입의 필요성

지금까지 의미론적 관점과 화용론적 관점에서의 전제 연구 흐름을 살펴보았다. 의미론적 관점은 언어 내적인 속성, 명제의 내용 혹은 논리 형태에 의존하여 전제를 다루었다. 의미론적 관점만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명제와의 논리 관계를 넘어서서 전제를 발화 상황을 통해 정의하는 화용론적 관점이 등장하였다. 화용론적 관점에서의 전제는 대화 참가자들의 상호 지식이다. 이와 같이 전제 현상에 대한 연구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을 시도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제 현상에 국한된 연구는 전제의 전반적인 속성과 기능을 기술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전제유발자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과 기능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전제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가 요구된다. 어떠한 현상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상자체의 표면적인 층위 연구도 필요하지

만, 그 기저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동반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전제 유발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전제 현상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 1.4. 전제유발자

### 1.4.1. 정의와 선행연구

전제는 문장의 특정한 어휘 또는 통사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 이와 같이 전제를 유발하는 언어적 장치를 전제유발자(déclencheur de la présupposition)라 한다. 전제유발자의 존재는 해당 전제유발자에 변화를 줄 경우 전제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연역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9) Marie a réussi à s'arrêter à l'heure.
≫ Marie a tenté de s'arrêter à l'heure.

위 문장 (9)에서 어휘 réussir에 의해 'Marie가 제시간에 멈추려고 노력했다'라는 전제가 유발된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réussir동사를 전제에서 사용된 tenter동사로 대체해보면, 아래와 같다.

(10) Marie a tenté de s'arrêter à l'heure.

이 경우, (9)문장에서 유발되었던 전제 'Marie가 제시간에 멈추려고 노력했다'는 전제의 지위를 상실하고 명제로서 명시적인 정보가 된다. 이로부터 문장 (9)에서 전제를 유발한 것은 réussir라는 어휘 요소였음이 명확해졌으며, 전제는 문장 내의 언어적 요소에 의해 유발된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다. Stalnaker(1974)는 이와 같은 전제유발자의 속성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Il est vrai que les faits linguistiques qui soient expliqués par la théorie de la présupposition sont pour la plupart relations entre des éléments linguistiques ou entre une expression linguistique et une proposition.
>
> (전제 현상은 대개 언어적 요소들 또는 언어표현이나 절간의 관계이다)

특정한 어휘 또는 통사구조가 전제를 유발한다고 주장한 학자들은 전제유발자의 종류를 분류하였다. 전제에 대한 의견과 주장이 다양한 만큼 전제 유발자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다. 전제유발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분류한 학자로는 Stephen C. Levinson(1983), Lauri Karttunen(1974), George Yule(1996) 등이 있다. Levinson의 분류는 뒤이은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고, Karttunen의 분류는 31가지로 본 논문에서 다루기 너무 방대하다 판단되어, 본 장에서는 전제유발자의 종류에 대해 집약적인 분류를 시도한 Yule의 분석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Yule 의 분석은 단순히 전제유발자를 분류하는 것 이상으로 전제의 종류와 결부시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22]

Yule은 전제의 종류를 총 6가지로 분류하며 각각의 전제를 유발하는 장치를 분석하였다. Yule의 전제유발자 유형을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다.

---

22) Yule, G. 1996. *Pragma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30

| Type de présupposition | déclencheur de la présupposition |
|---|---|
| existentiel | possessif, détermination |
| factif | regretter, réaliser, savoir |
| lexical | réussir, commencer, encore, stopper |
| structural | question en 'qu...' |
| non-factif | rêver, imaginer, prétendre |
| contre-factuel | phrase en 'si' |

< 표 1 > 전제 유발자와 전제의 유형

먼저, 존재적 전제는 발화된 것의 존재가 전제되는 경우이다. 소유형용사, 수량사, 한정사 등이 명사를 수식할 경우, 화자는 그 명사의 존재를 전제한다. *Est-ce* ***tes*** *enfants sont venus?* 의 문장에서 소유형용사 *tes*는 'l'interlocuteur a des enfants'이라는 전제, 즉 청자에게 아이들이 있다는 존재적 전제를 유발하게 된다.

사실적 전제는 사실동사, 또는 뒤따르는 내용에 대한 화자의 감정적이거나 인지적인 상태를 나타내주는 구에 의해 유발된다. *Tous le monde* ***sait*** *qu'elle a changé sa voiture.* 라는 문장에서 사실동사 *savoir*는 *que* 이하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를 발생시킨다. 또는 *Je* ***suis ravi d'****être ici.* 의 경우, *ravi*라는 어휘는 *de*이하의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한다.

어휘적 전제는 관습적으로 어떠한 어휘를 발화하였을 때, 단언되지 않은 다른 내용을 전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화자가 *Paul a* ***cessé*** *de fumer.*라고 발화할 경우, 화자는 '멈추다'라는 의미의 동사 *cesser*를 통해 '발화하는 시점 이전에는 담배를 피웠었다'라는 진술되지 않은 내용을 전제로 전달하게 된다.

다음으로 구조적 전제는 문장 구조에 의해 관습적으로 그 구조의 일부가 사실로서 추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화자는 이미 사실로서 추정되는 전제된 내용을 다루기 위해 구조적 전제를 이용하며, 청자 또한 이

에 대해 인정하는 상황에서 유발된다. ***Quand il est parti?*** 라는 발화를 하는 화자와 청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미 화자는 il est parti라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추정하고, 청자 또한 '그가 떠났다'는 내용이 사실임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의문문을 사용하여 '그는 떠났다'라는 전제를 유발하는 것이다.

비사실적 전제는 앞선 사실적 전제와는 대조적으로, 문장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며 비사실 동사를 전제유발자로 취한다. *Nous avons* ***imaginé*** *que nous étions à Hawaii.*에서 비사실 동사 *imaginer*는 'Nous ne somme pas à Hawaii'라는 전제를 유발하는 전제유발자이다. 사실적 전제나 비사실적 전제는 그 이후에 진술되는 정보가 사실인지, 실현되지 않은 비사실인지를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반사실적 전제는 반사실 조건문에 의해 유발되며, 가정된 내용이 사실과 대조되는 것이라는 전제이다. ***Si j'avais*** *eu un yacht,* ***j'aurais*** *parcouru le monde.* 라는 가정법문장에서는 발화시점에서 단지 나에게 요트가 없다는 사실 뿐 아니라, 현재의 사실과는 반대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전제한다.[23]

Yule의 대표적인 전제유발자 연구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전제유발자 연구는 전제유발자의 종류를 분류하는 작업에 치우쳐 전제유발자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에 그쳤다. 최근에 들어서 전제유발자의 다양한 종류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전제유발자의 강도를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이 생겨났다. 이와 더불어 전제유발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본 논문에서는 전제 유발 요소의 다양성을 분석하고 더불어 전제 유발자의 강도에 따라 재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

23) Ibid., Yule은 반사실 조건문을 지시와 연결지어 논하였다. 시간지시에 있어서 현재시제는 근거리를 나타내고, 과거시제는 원거리를 나타낸다. if절을 이용한 과거시제는 지시적으로 화자의 현재 상황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 즉, 조건절에 나타난 내용이 현재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전제되는 것이다.

### 1.4.2. 전제 유발 요소의 다양성

본 장에서는 전제를 유발하는 요소의 다양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예를 통해 전제를 유발하는 언어적 요소가 다양하다는 점을 볼 것이다.

(11) Paul est *revenu* à Paris.
≫ Paul était à Paris auparavant.
(12) *C'est* ma sœur *qui* a acheté une maison en Vendée.
≫ Quelqu'un a acheté une maison en Vendée.
(13) (씩씩대며 상대방에게 삿대질을 하며) *Tu as fini?*
≫ Le locuteur est en colère.

전제는 다양한 의미적 기제를 통해 유발된다. 예문 (11)의 경우, 'Paul은 Paris로 돌아왔다'의 의미로 revenir에서 '반복'의 나타내는 접두어 re-의 의미로부터 'Paul이 예전에 Paris에 있었고, 발화 전에는 Paris에 없었다'는 전제가 유발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서 전제를 유발하는 것은 revenir의 **어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예문 (12)의 경우를 보자. 예문은 'Vendée에 집을 산 것은 내 여형제이다'로 해석될 수 있다. 해당 발화와 동시에 전달되는 전제의 내용은 '누군가가 Vendée에 집을 구매했다'이다. 그런데 이 전제는 예문 (11)에서와 같이 특정 어휘의 의미로부터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특정 요소를 강조하기 위한 c'est...que...분열 구문에 의해 유발된다. 이는 의미뿐 아니라 의미가 결여된 통사 구문과 같은 **문법 의미**도 전제 유발 요인임을 보여준다.

예문 (13)의 경우를 살펴보자. '너 끝났어?'라는 의미의 의문문이다. 발화자가 해당 문장을 문장 유형의 목적(질문하기)과 동일하게 상대방이 끝마쳤는지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질문을 하는 것이라면, finir라는 어휘의 의미로부터 '청자가 끝맺음이 예정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전제가

유발된다. 그렇다면, 화자가 화가 난 표정과 격양된 어조로 손으로 상대방에게 삿대질을 하며 'Tu as fini?'라고 발화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저 의문문은 앞의 경우처럼 '너 끝냈어?'라는 정보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화자는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에 수반된 격양된 어조와 표정 등을 통해 '너 말 다했어?'라는 의미와 자신이 화가 나있다는 것을 전제 내용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때, 어조와 같이 발화 상황에서 발화의 정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언어 내적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특정한 정보를 전제로 유발하는 요소를 **화용 의미**라 한다. 다시 말해, 화용 의미는 문장 차원을 넘어서 발화의 과정 속에서, 발화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의미로서, 체계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사용과 관련된 의미이다. 따라서 문장 차원에서 유발되는 전제와는 또 다른 전제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정리해보자면, 전제를 유발하는 의미적인 요인을 구성하는 것으로는 **어휘 의미**, **문법 의미**, 그리고 **화용 의미**가 있다. 특정한 어휘, 구 또는 절이 그 의미상으로 전제를 유발할 때, 이 전제 유발 요인은 어휘 의미이고, 의미가 결여되어 있지만 통사 구조나 구문에 의해 전제를 유발하는 것은 문법 의미이다. 어휘 의미나 문법 의미와 같은 문장 차원에서의 의미가 아닌, 언어의 사용 차원에서 발화 상황과 관련하여 전제를 유발하는 요인은 화용 의미이다.

전제 유발자는 다양한 의미 속성으로부터 유발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2장에서는 전제를 유발하는 어휘 의미와 문법 의미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문장 차원에서의 전제유발자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기에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전제유발자로서의 화용의미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24]

---

24) 전제유발자로서의 화용 의미는 1.3.2에서 언급한 전제 현상에 대한 화용적 접근의 필요성에 있어서의 개념으로, 문장 차원의 의미적 접근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과 상통한다. 다만, 이 전제유발자로서의 '화용 의미'는 후에 2.2.1장에서 전제유발자의 강도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의미적 전제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의 '화용적 전제'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간단하게 미리 설명하자면, '화용 의미'는 전제 유발자의 한 유형

# Ⅱ. 전제유발자의 유형과 강도

본 장에서는 전제유발자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2.1장에서는 전제유발자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고, 이 유형 분류를 바탕으로 2.2장에서는 유발되는 전제의 강도에 따라 강한 전제유발자와 약한 전제유발자로 재분류를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2.3장에서 전제유발자의 유형과 강도의 상관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 2.1. 전제 유발자의 유형

앞서 보았듯이 전제를 유발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특정 어휘의 의미 속성에 의해 전제가 유발되기도 하고, 의미가 결여된 구문이 통사적으로 전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refaire'의 경우 반복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 *re*-에 의해 '예전에도 했었다'는 전제가 유발된다. 반면, 부분 의문문[25]의 경우, 의문사로 도입되는 의문문 구조에 의해 문장의 일부가 전제된다. 'Quand il est sorti?'라고 발화했을 경우, 의문문이라는 점에서 청자는 'il est sorti'라는 전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전제유발자를 그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26]

### 2.1.1. 의미 속성 전제유발자

의미 속성 전제유발자는 특정 어휘 또는 절의 의미가 전제를 유발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다음은 전제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의미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의미 속성 전제유발자로는 반복성, 사실성(인지, 판단, 감정), 상

---

이며, 후에 등장하는 '화용적 전제'는 약한 전제유발자로부터 유발되어 상대적으로 문맥상에서 유보가 용이한 전제를 일컫는다.

25) 부분 의문문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일컫는다.

26) 본 장의 분석은 Levinson(1983)의 전제유발자 종류를 참고하였음.

태변화, 시간절, 비교 구문, 그리고 기타 함축 어휘가 있다.

## (i) 반복성

먼저, 반복성 어휘가 유발하는 전제는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유발된다. 반복 어휘에는 반복 동사, 반복 부사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반복성을 띠는 어휘들이 포함된다.

(14) Max est allé à l'hôpital *encore*.
≫ Max est allé à l'hôpital avant.

(15) Claire *reviendra* vous voir.
≫ Claire est venue vous voir auparavant.

위 문장 (14)과 (15)에서 사용된 전제유발자는 반복성을 지닌 부사 *encore*와 반복 접두어 *re*-를 포함한 *revenir*동사이다. 반복부사 *encore*는 '다시'라는 의미로 '예전에도 부사가 수식하는 사건이 일어났었다'라는 전제를 유발한다. 예문 (14)에서는 'Max가 병원에 갔다'라는 사건이 예전에도 일어났었다는 점을 나타내면서 'Max가 예전에도 병원에 갔었다'는 전제를 유발한다. 문장 (15)에 사용된 *revenir*는 '다시 오다'라는 의미로 위 예문에서 'Claire가 당신을 보러 왔었다'는 전제를 유발한다. 반복 접두어 *re*-를 통해 파생된 어휘는 일반적으로 모두 '예전에도 어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어났다'는 전제를 유발한다.[27] 대표적으로는 동사 repartir, refaire 등이 있다. 반복 접두어가 사용되지 않아도 반복성을 나타내는 어휘도 동일한 유형의 전제를 유발한다. 예를 들어, répéter, multiplier와 같은 어휘도 유사한 전제를 유발한다.

---

27) 주의해야 할 점은, 어휘에 사용된 re-가 항상 반복성을 나타내는 접두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Regarder와 renvoyer와 같은 동사에 사용된 re는 반복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 (ii) 사실성- 인지, 판단, 감정

둘째로는, 어휘가 내포하는 사실성 의미 속성으로 인해 전제가 유발되는 경우이다. 이 때, 사실성이란, 화자가 미리 알고 있는 정보가 사실임을 나타내는 속성이다. 사실성은 인지하는 행위, 판단하는 행위, 감정을 나타내는 행위에서 전제되는데, 사실성 술어를 포함하는 문장은 que이하의 보어절의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하게 된다. 사실성을 전제하는 것으로는, 특정한 상황이나 지식에 대한 인지행위 자체를 나타내는 인지적 사실동사, 어떠한 사실에 대한 정서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감정적 사실동사, 그리고 인지된 정보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판단 동사가 있다.

(16) Thomas ne *savait* pas que Baird a inventé la télévision.
≫ Baird a inventé la télévision.

(17) *Le fait que* Michel est à Paris est un secret.
≫ Michel est à Paris.

(18) Max *regrette* qu'il ait quitté ses études.
≫ Max a quitté ses études.

(19) Pierre a *accusé* Roban de s'être enfui.
≫ Roban s'est enfui.

각각의 예문에서 사용된 savoir, le fait que, regretter, accuser는 모두 que이하의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한다. 문장 (16)과 (17)은 사건의 인지를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여 사건이 사실임을 전제하는 경위다. 먼저, 예문 (16)은 savoir동사를 통해 que 이하의 절인 'Baird가 텔레비전을 발명했다(전제)'가 사실이고, 'Thomas는 이를 모른다(명제)'는 정보를 전달한다. Savoir와 같은 인지적 사실동사로는 connaître, découvrir, réaliser등이

있다. 마찬가지로, 예문 (17)은 le fait que라는 사실성 명사구를 사용함으로써 'Michel이 Paris에 있다'는 전제가 유발된다. 문장 (18)에서는 감정적 사실동사 regretter동사를 통해 que이하의 절에 대한 Max의 후회의 감정을 나타낸다. 이 때, que 이하의 절인 'Max가 공부를 그만두었다'는 것이 사실이어야지만 Max가 이에 대해 후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Max가 공부를 그만두었다'는 것이 사실로 전제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장 (19)에서는 어떠한 행위나 생각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accuser동사를 통해 'Roban이 도망갔다'는 정보를 사실로서 전제한다. 판단 또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 대상이 사실로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각각의 예문에서 사실성을 내포하는 전제유발자에 의해 생성된 전제는 각 발화가 부정이 되어도 유지된다는 점에서 전제임이 확인된다.

### (iii) 상태변화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어휘[28]는 상태에 관한 전제를 유발한다. 지속성을 나타내는 continuer, 어떠한 상태의 시작을 나타내는 commencer, entrer, aller, 상태의 끝을 의미하는 finir, arrêter, cesser 등이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동사 이외에도 enfin, toujours, depuis, désormais 등과

28) 상태 변화 어휘는 어떤 사건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어휘를 지칭하며 상태 변화 적용되는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상태 변화 동사(change of state verbs)에 대한 분석은 다양한데, 외부 상태변화 동사 (externally caused change of state verbs)와 내부 상태변화 어휘(internally caused change of state verbs)로 분류되기도 한다. 전자에는 casser, geler, refroidir등이 속하고, 후자에는 pourir, s'épanouir, éroder 등이 속한다. (Wright, 2002) 그런데 상태변화 동사에는 위와 같은 동사들의 상태를 규정하는 상(aspect)동사들도 포함된다. 그 예로는, les supports aspectuels d'intensité, les supports aspectuels terminatifs(terminer, s'achever, se finir), les supports duratifs(continuer, se poursuivre) 등이 있다. (이성헌, 2001) 본 장에서는 상태변화 어휘를 이러한 어휘들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같이 상태를 표현하는 부사도 전제 유발자이다. 아래는 상태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전제를 유발하는 예이다.

(20) Paul *continue* de jouer au foot.
≫ Paul jouait le foot auparavant.

(21) Pierre a *cessé* de fumer.
≫ Pierre fumait auparavant.

(22) Je suis *toujours* avec vous.
≫ J'étais avec vous avant, et je suis avec vous maintenant.

(23) Il a *enfin* fini son travail.
≫ Il n'a pas fini son travail avant l'énonciation.

위 예문에서 쓰인 상태변화 어휘로는 continuer, cesser, toujours, enfin이 있고, 이들은 발화 당시, 이전 또는 이후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전제한다. 예문 (20)에서 continuer 동사는 '계속하다'의 의미로 'Paul이 발화 이전에도 축구를 했으며, 발화 후에도 축구를 계속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continuer동사는 발화 시점 전후로 상태가 지속된다는 전제를 유발하게 된다. 반면 예문 (21)에서 사용된 cesser 동사는 '멈추다'라는 의미를 통해, 발화에서 지시하는 시점까지 명시된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것이 전제한다. 이 경우, 'Pierre가 이전에 담배를 피웠다'는 전제를 유발하는 것이다. 예문 (22)과 (23)는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부사가 전제를 유발하는 예이다. 예문 (22)에서 전제유발자 toujours는 지속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통해 '화자가 전에도 당신과 함께했었고, 현재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전제를 유발한다. 한편, 예문 (23)에서 '마침내'라는 의미의 'enfin'은 '그는 발화 이전까지 일을 끝마치지 않았다'는 전제를 유발한다.

### (iv) 시간성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시간성 또한 사건의 순서에 관련된 전제를 유발한다. 시간성은 주로 시간 절로 표현되는데, avant de, pendant, après que, dès que, jusqu'à 등이 이루는 부사절은 각각 시간성을 나타내는 avant, pendant, après, dès, jusqu'à 와 같은 어휘의 의미에 의해 전제를 유발한다.[29] 시간 접속사가 포함된 시간절의 내용이 이미 벌어진 사건이라는 전제가 유발된다.

(24) a. Marie est partie {*quand, après que, dès que*} Pierre est arrivé.
≫ Pierre est arrivé.
b. Marie est restée *jusqu'à* ce que Pierre arrive.
≫ Pierre est arrivé.

(Le Draoulec, 2006)

위 예문 (24a), (24b) 각각에 사용된 시간종속절은 'Pierre가 도착했다'는 동일한 전제를 유발한다. (24a)에서 quand을 사용했을 때 (Pierre가 도착했을 때, Marie는 떠났다), après que를 사용했을 때 (Pierre가 도착한 다음에 Marie는 떠났다), 그리고 dès que를 사용했을 때 (Pierre 가 도착하자마자 Marie는 떠났다) 모두 시간 절의 구조에 의해 종속절의 내용이 사실로 전제된다. (24b)에서 'Pierre가 도착할 때 까지 Marie는 남아있었다'에서도 마찬가지로, jusqu'à로 이어진 시간 절로 인해 동일한 전제가 생성된다.

---

29) Huang(2006)은 전제유발자를 어휘 유발자와 구문 유발자로 구분하여 시간절을 구문 유발자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유발자의 유형을 의미 속성과 의미가 결여된 구문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시간에 관련한 전제를 유발하는 요인이 구문이 아니라 avant, après등의 어휘의 시간성이라는 의미 속성이라 판단하여 의미 속성 유발자로 분류하였다.

### (v) 비교

비교 구문을 형성하는 요소로는 plus...que..., moins...que..., aussi...que...,와 같은 비교급과, comme과 같이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다. plus, moins, aussi 와 같이 정도를 나타내주는 어휘의 의미 속성으로 인해 비교되는 대상과 비교하는 대상이 공통되는 비교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는 전제를 유발하게 된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25) Carol est une linguiste *plus* compétente *que* Barbara.
≫ Barbara est une linguiste.
(26) Pierre n'est pas *aussi* pâle *que* Max.
≫ Max est pâle.

예문 (25)에서는 비교구문 plus..que...를 통해 'Carol이 Barbara보다 더 뛰어난 언어학자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때, 유발되는 전제는 'Barbara가 언어학자'라는 것이다. 이 전제가 성립해야지만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문 (26)에서는 aussi...que...의 사용으로 인해 명제는 'Pierre는 Max처럼 창백하지는 않다'라는 의미이고, 따라서 'Max는 창백하다'라는 전제가 유발되는 것이다.

### (vi) 함축속성

다음으로, 함축어휘는 반복성, 사실성, 또는 상태변화를 내포하는 어휘를 제외하고, 어휘의 의미로 인해 특정한 내용을 전제하는 어휘를 일컫는다. 함축어휘의 경우, 동사, 형용사, 부사 등으로 그 품사가 다양하며, 각각의 함축적인 의미를 통해 고유한 전제를 유발할 수 있다. 다음은 함축 어휘 réussir와 solution이 사용된 예이다.

(27) Max a *réussi* le bac.
≫ Max a passé le bac.

(28) Pierre a proposé une *solution* pour Marie.
≫ Marie a un problème.

예문 (27)의 경우, réussir가 '시험에 합격하다'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 이는 '시험에 응시하다'라는 전제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문장 (28)의 solution은 '해결책'의 의미로 Marie에게 문제가 있다는 전제가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premier, nouveau, unique등의 품질형용사[30]도 함축적인 의미로 전제를 유발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의미 속성 전제유발자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table>
<tr><td rowspan="7">의미 속성<br>전제유발자</td><td colspan="2">반복성</td><td>revenir, repartir, refaire, reformuler<br>encore</td></tr>
<tr><td rowspan="3">사실성</td><td>인지</td><td>savoir, connaître, découvrir</td></tr>
<tr><td>감정</td><td>regretter</td></tr>
<tr><td>판단</td><td>accuser, critiquer</td></tr>
<tr><td colspan="2">상태변화</td><td rowspan="2">commencer, arrêter, continuer<br>toujours, enfin, depuis</td></tr>
<tr><td colspan="2">시간성</td></tr>
<tr><td colspan="2">비교</td><td>plus que, moins que, aussi que, comme</td></tr>
</table>

30) 최윤선, *op.cit.*, p. 494. 품질형용사는 광고언어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전제유발자이다. 품질형용사의 경우, 대개 타사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를 하지 않되, 타사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비교 우위 형태를 취한다.

| | | |
|---|---|---|
| | 기타 함축속성 | réussir, solution<br>premier, nouveau, unique<br>aussi |

< 표 2 > 의미 속성 전제유발자 유형

### 2.1.2. 통사 구문 전제유발자

통사 구문 전제유발자란, 전제를 유발하는 요인 중, 의미가 결여된 문법 의미, 즉, 문장의 구조나 통사와 같은 언어적 장치이다. 이들은 앞에서 보았던 의미상으로 전제를 유발하는 경우와는 무관하게 수식 관계로 이루어진 구문이나 절과 같은 통사 구문에 의해 전제가 유발된다. 통사 구문 전제유발자에는 한정 구문, 분열문, 반사실적 조건절, 관계절, 의문문 등이 있다.

#### (i) 한정 구문

전제를 유발하는 통사적인 요인 중 한정 구문이 있다. 한정사(déterminant)에는 소유형용사, 지시형용사 등 뒤에 나오는 명사를 한정해주는 장치들이 속한다.[31] 명사 앞에 위치하여 명사를 한정해줌으로써 명사의 존재가 전제가 된다.

(29) *Mes* enfants ont joué du piano.
≫ Mes enfants existent.

31) 본 논문에서는 전제 유발 경위에 초점을 두어 소유형용사, 지시 형용사, 관사 등 명사와 함께 명사구를 형성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 한정 기술이라 칭한다.

(30) Marie va manger *ce* gâteau.
≫ Il y a un gâteau.

위 예문 (29)에서 사용된 소유형용사 mes는 뒤이은 명사 enfants을 수식함으로써 '내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정보를 전제한다. 예문 (30)의 지시형용사 ce도 마찬가지로 gâteau를 수식하고, 이로 인해 손으로 가리킬 수 있는 거리에 '케잌'의 존재가 전제된다.

## (ii) 분열 강조 구문

분열문(construction clivée)은 절의 한 요소가 나머지 요소들로부터 분리되어 이웃한 다른 절에 나타나는 문장으로 일반적으로 '*c'est.. qu....*'의 형태를 취한다. 분열 구문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32] 이 중 전제를 유발하는 구문은 분열을 통해 강조를 하게 되면서 분열요소와 관계절 사이의 정보 구조에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다. 분열 구문에서 강조되는 요소는 신정보를 나타내고 que 이하의 관계절은 화자와 청자 간의 공유된 배경지식, 즉 전제를 이룬다.

(31) a. Il a acheté ce cahier pour moi.
b. *C'est* lui *qui* a acheté ce cahier pour moi.
≫ Quelq'un a acheté ce cahier pour moi.

분열문이 되기 전의 기본 문장 (31a)에서 주어 il은 명제 정보('그는 나에게 이 공책을 사주었다')의 일부분을 이룬다. 주어 il을 강조하고자 (31b)와 같이 분열 구문을 쓴다면 정보 구조가 변화하면서 전제가 유발된다. 문장 전체가 명제 층위의 정보를 전달하는 문장(31a)을 분열문으

32) Katz(2000)는 프랑스어 분열문의 유형을 변항값 명시 구문, 교정적 구문, 인과적 구문, 사실적 구문으로 분류하였다. 자세한 설명은 박정섭(2011)을 참고.

로 구성할 경우, que이하의 관계절의 내용('누군가가 나에게 이 공책을 사주었다')은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구정보가 되며, c'est 와 que 사이에 놓여 강조를 받게 되는 il(lui)는 '그 분열 요소(il/lui)가 바로 그 누군가이다'라는 신정보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문장 (31b)는 분열 구문으로 인해 '누군가가 나에게 이 공책을 사주었다'라는 전제를 지니게 된다.

### (iii) 반사실적 조건절

반사실적 조건절(proposition conditionnelle contrefactuelle)이란, 반과거와 조건법으로 이루어진 구문으로 통사적인 기제에 의해 '조건절의 내용이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한다.

(32) *S'il tonnait dehors*, le bruit du tonnerre couvrirait nos voix.
≫ Il ne tonnait pas dehors.

반 사실적 조건절의 사용은 과거에 일어난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전제한다. 예문 (32)는 '밖에 천둥이 친다면, 목소리가 천둥소리에 묻혔을 텐데'라는 의미로 실제로는 천둥이 치지 않았다는 점이 전제된다.

### (iv) 관계절

관계절(proposition relative)은 일반적으로 문장에 que로 이어져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구문이다. 관계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관계절이 수식하는 대상을 한정하는 한정적 관계절과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 또는 수식을 하는 비한정적 관계절이다.[33] 후자의 관

33) Levinson, S. op.cit., p.183, Levinson은 관계절의 두 유형을 구분한다. 한정적 관계절은 수식하는 명사구를 한정한다. 예를 들어, 'Seuls les garçons qui

계절의 경우에만 관계절의 내용이 전제로 유발된다.

(33) Gabrielle Chanel *qui* a mené une révolution à la mode française de Belle Epoque, est très connue de nos jours.
≫ Gabrielle Chanel a mené une révolution à la mode française de Belle Epoque.

위 예문 (33)에서 qui이하의 관계절 'qui a mené la révolution à la mode française de Belle Epoque'는 Gabrielle Chanel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이 경우, 해당 문장을 부정문('Gabrielle Chanel qui a mené la révolution à la mode française de Belle Epoque, n'est pas très connue dans nos jours')으로 바꿔도 긍정문의 전제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v) 의문문

의문문(phrase interrogative)의 경우 의문문의 일부분이 전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의문문에는 oui/non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선택의문문, 의문사에 의한 의문문이 있다.

(34) *oui/non question*
Il y a un professeur de linguistique à MIT?
≫ Soit il y a un professeur de linguistique à MIT ou il n'y en a

---

sont grands peuvent atteindre le placard' 라는 문장에서 관계절 'qui sont grands'는 garçons들 중 키가 큰 소년들을 나타내며 한정한다. 반면, 비한정적 관계절은 수식하는 명사구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Hillary, qui a monté Mont Everest en 1953, était le plus grand explorateur de notre époque.'에서 관계절 'qui a monté Mont Everest'는 Hillary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pas.

(35) *question alternative*

Est-ce que Séoul est en Corée ou au Japon?

≫ Séoul est en Corée ou au Japon.

(36) q*uestion avec le mot interrogatif*

Comment il a ouvert la porte?

≫ il a ouvert la porte.

예문 (34)에서 'MIT에 언어학 교수가 있습니까?'라는 의문문은 예/아니오의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따라서 해당 의문문에 전제된 내용은 'MIT에 언어학 교수가 있거나 없다'일 것이다.[34] 한편 의문문 (35)는 청자에게 의문문에 제시된 정보들 가운데 선택을 요구한다. 따라서 질문 (35)에 전제된 내용은 '서울은 한국 또는 일본에 있다'이다.[35] 마지막으로 의문문 (36)은 의문사 comment이 사용된 의문문이다. 의문사가 사용될 경우, 일반적으로 의문문에 대응되는 평서문이 전제된다. 예문 (36)의 경우, '그가 어떻게 문을 열었습니까?'의 평서문 '그가 문을 열었다.'가 전제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제를 유발하는 통사 구문으로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은 통사 구문 전제유발자 유형을 정리한 표이다.

---

34) 예문 (34)를 발화할 경우, 'MIT에 언어학 교수가 있거나 없다'는 전제 이외에도 'MIT가 존재한다', 'MIT에는 여러 과의 교수들이 존재한다'도 기본 전제로 유발된다. 다만, 여기서는 의문문이라는 통사 구조에 의해 유발되는 전제에 주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35) 해당 전제는 명제의 진리치가 참일 경우에만 성립한다.

| | | |
|---|---|---|
| 통사 구문 전제유발자 | 한정 구문 | 소유형용사, 지시형용사 |
| | 분열 강조 구문 | c'est... que... |
| | 반사실적 조건절 | si (반과거), (조건법) |
| | 관계절 | 비한정적 관계절 |
| | 의문문 | oui/non, alternatif, mot interrogatif |

< 표 3 > 통사 구문 전제유발자 유형

전제유발자가 언어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고유한 전제를 유발하는지에 따라 의미 속성 전제유발자와 통사 구문 전제유발자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전제를 유발하는 의미 속성으로는 반복성, 사실성, 상태변화, 시간성, 비교, 그리고 그 외의 함축 속성이 있었고, 통사 구문의 형태로 전제를 유발하는 것으로는 한정구문, 분열 강조 구문, 반사실적 조건절, 관계절, 의문문이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제유발자는 유발 요인이 의미이던 구조이던 문장에서 사용되었을 때 충실하게 전제를 유발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제유발자들이 모두 동일한 강도로 전제를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령, 의문문의 경우, 분명하게 평서문에 해당하는 전제가 유발되지만 부정 하에서의 일관성은 유지되지 않는다.[36] 이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전제 유

36) 의문문의 경우, 전제의 일반적인 속성인 부정 하에서의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a. Pourquoi Paul a changé sa classe?

위 예문에서 부분의문문의 성격으로부터 'Paul a changée sa classe'라는 전제가 유발된다. 그런데 위 예문을 부정하면 다음과 같다.

b. Pourquoi Paul n'a pas changé sa classe?

부정문 b는 a의 전제를 함의하지 않는다. 문장 b의 전제는 'Paul n'a pas changé sa classe'이다. 따라서 의문문의 경우, 부정 하에서의 일관성이 성

발자들이 전제를 유발하는 강도에 차이를 보인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전제유발자가 전제를 유발하는 강도에 따른 분류와 함께 이에 따른 담화 효과 분석까지 시도해보고자 한다.

## 2.2. 전제유발자의 강도

전제유발자마다 유발하는 전제의 강도가 다르다. 해당 강도에 따라 전제는 문맥에 의해 취소되는 정도도 상이하다. 전제의 개별적인 속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 본 장에서는 앞서 분류한 유형을 바탕으로 전제유발자 기능의 강도를 기준으로 강한 전제유발자와 약한 전제유발자로 분류하고자 한다.

### 2.2.1. 전제유발자의 강도

2.1장에서는 특정 어휘 의미나 문장 구조를 통해 전제를 유발하는 전제유발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전제 유발에 있어서 그 확실성 및 취소 가능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강한 전제유발자와 약한 전제유발자로 나눠 살펴보기로 한다. 전제유발자마다 유발하는 전제의 강도가 다르다는 점은 아래 예문을 통해 드러난다. 2.1.1장의 (ii)에서 우리는 전제를 유발하는 어휘 의미 유발자 중에 사실성을 내포하는 동사가 있으며, 사실 동사의 하위부류로 인지적 사실동사와 감정적 사실동사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인지적 사실동사와 감정적 사실동사가 전제를 유발하는 두 경우이다.

(37) a. Si Pierre *réalise* qu'il a commis une erreur, il va probablement corriger sa phrase.
≫ Pierre a commis une erreur.

---

립하지 않는다.

b. Si Pierre *regrette* qu'il ait commis une erreur, il va probablement corriger sa phrase.
≫ Pierre a commis une erreur.

(37a)에는 인지적 사실동사 réaliser가, (37b)에는 감정적 사실동사 regretter가 쓰였다. 앞선 분류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실동사가 사용되었을 경우, 동사가 내포하는 que절의 내용이 전제로 유발된다. 따라서 위 두 예문은 각각 사실동사 réaliser 와 regretter에 의해 "Pierre a commis une erreur"라는 전제를 지니게 된다. 그런데 두 발화의 청자는, 직관적으로 (37a)보다 (37b)에서 Pierre가 오류를 범했다는 전제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된다.[37] 이를 통해 우리는 인지적 사실동사와 감정적 사실동사가 유발하는 전제의 강도가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제유발자의 속성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그 요인(의미 속성, 통사구문)만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전제유발자가 해당 유발자가 속한 명제와의 결속정도에 따른 전제유발의 강도에 대한 2차적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전제유발자의 강도에 대한 분류를 시도한 Dorit Abusch(2002)의 분석을 토대로 앞서 분석한 전제유발자를 2차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Abusch는 전제유발자가 어휘 또는 통사구조를 통해 유발되는 과정에

---

37) Jayez, J, Valeria, M, Anne, R, & Jean-Baptiste van der Henst. 2014. *Weak and strong triggers*. In Florian Schwarz (ed.), *Experimental Perspectives on Presuppositions,* Berlin: Springer. p.175. Découvrir, réaliser, savoir와 같은 전제유발자는 직관적인 전제 수반이 항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regretter 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weak). 이러한 직관적인 느낌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전제유발자로 réaliser가 사용된 (34a)의 경우, 화자가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화자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réaliser) 한다. 반대로, 그녀가 실수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녀가 실수를 범했다고 전제할 수 없다. 반면, regretter가 사용된 (34b)의 경우, 화자가 실수를 범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도 실수 했다는 사실은 전제될 수 있다. 실수를 범했지만 후회는 나중에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순전히 의미적으로 유발자 내부에 전제가 결부되어 유발되는 경우와 화용적 개입을 통해 유발되는 경우를 구분한다. 의미적으로 유발된 전제의 경우 유발된 전제는 유발자와 강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취소 불가하다. 반면, 화용론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 전제는 문맥이나 발화 상황에 의해 전제가 취소 또는 유보[38]될 수 있다. Abusch는 전자를 강한 전제유발자(déclencheur fort de la présupposition), 후자를 약한 전제유발자(déclencheur faible de la présupposition)[39]라 칭하였다.

Abusch는 약한 전제유발자와 강한 전제 유발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전제 미지 문맥(Explicit Ignorance Context)'[40]을 제안한다. 전제유발자를 포함하는 명제에 명백하게 전제를 무효화하는 문맥을 연계시켰을 때,

---

38) 전제 유보(presupposition suspension)는 문맥 중화(contextual neutralization)라고도 불리는 개념이다. 전제 유보된다는 것은 전제가 문맥에 타협하여 문맥에 맞게 약해진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전제 유보의 개념은 전제 취소의 한 형식으로 간주된다. 본 논문에서는 문맥의 영향을 받아 전제가 약해지거나 취소된다는 점에서 전제 취소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였다.

39) 강한 전제유발자(déclencheur fort de la présupposition)와 약한 전제유발자(déclencheur faible de la présupposition)의 프랑스어 명칭은 Nølke(1994:126)의 명칭을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40) Abusch(2002)는 강한 전제유발자와 약한 전제유발자의 분류 기준으로 '전제 미지 문맥(Explicite Ignorance Context)'을 제시한다. 이는 Simons(2001:432)에서 처음 제시된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전제유발자를 포함한 문장 앞에 해당 전제에 대해 모른다는 문맥의 문장을 덧붙였을 경우, 과연 의미적으로 자연스러운 연결을 이루는지 보는 것이다. 이 때, 자연스러운 문맥을 이룬다면 약한 전제유발자, 그렇지 못한 경우는 강한 전제유발자이다. 다음은 Simons(2001:432)의 발췌이다.

It is well known that all presuppositions can be canceled (fail to project) in certain sentential contexts. In addition, some – but crucially, not all – presuppositions are susceptible to cancellation in what I will call *explicit ignorance contexts*: situations in which it is apparent to the addressee that the speaker is ignorant with respect to the proposition that would normally be presupposed.

문장이 의미적으로 성립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유발자의 종류가 구분된다는 것이다. 약한 전제 유발자의 경우, 화용적 요소의 영향을 받으므로, 유발된 전제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문맥이 덧붙었을 때 그 전제는 문맥의 영향으로 인해 투사[41]되지 못하고 취소된다. 이로서 전제에 대해 무지한 문맥과 자연스러운 문맥을 형성하게 된다. 반면, 강한 전제유발자의 경우, 유발되는 전제와 전제유발자가 견고하게 결부되어 있기에 전제를 부인하는 문맥에도 전제는 취소되지 않고 덧붙여진 문장으로 투사된다. 그 결과 전제를 부인하는 문맥과 부합하지 않는 비문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전제유발자는 유발하는 전제에 있어서 강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앞서 정리하였던 전제 유발자를 'Explicit Ignorance Context'의 기준을 적용하여 취소 가능 여부에 따른 강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 2.2.2. 강한 전제유발자

강한 전제유발자란, 유발된 전제가 상대적으로 문맥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지되는 경우의 유발자를 말한다. 따라서 강한 전제유발자가 사용된 문장의 전제는 전제유발자와 강력하게 결부되어 있으며, 그 결과 전제를 무효화 시키는 문맥이 문장 앞에 덧붙여질 경우에도 유효하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색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어떠한 전제 유발자가 강한 전제유발자로 분류되는지 살펴보겠다.

---

41) Karttunen(1973:172)에 의하면 전제 투사는 복합문의 전제와 관련된 현상으로, 문장 전체의 전제가 그 하위절의 전제와 어떠한 관련을 맺으며 결정되는가를 다루는 문제이다. 선행절이나 후행절의 전제가 문장 전체의 전제가 되는 경우를 전제가 '투사되었다'고 한다. 즉, 전제유발자의 강도를 적용하여 투사 개념을 설명하자면, 원래 문장의 전제가 유보되지 않고 존재하여 투사되어 앞의 상반된 문맥과 부조화를 이룬다면 강한 전제이고, 전제가 유보되어 전체 문맥으로 투사되지 못하고 덧붙여진 문맥과 조화를 이룬다면 약한 전제이다.

### 2.2.2.1. 분열 강조 구문

C'est...que...분열문은 본래 문장이 강조하고자 하는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신정보의 지위로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며, 그 결과 que이하의 절이 구정보로 전제되는 구조를 지닌다. 분열 구문이 전제유발자로 기능하는 문장에 전제를 무효화 시키는 문맥을 덧붙여 봄으로써 분열 강조 구문의 전제유발자 유형을 알 수 있다.

(38) a. C'est Marie qui a brisé cet ordinateur.
≫ Quelq'un a brisé cet ordinateur.
b. *Je ne sais pas si quelq'un a brisé cet ordinateur.*[42] # Mais si c'est Marie qui l'a fait, elle devrait le réparer.
(Romoli Jacopo, 2012)

예문 (38a)는 'Marie a brisé cet ordinateur'라는 문장에서 'Marie'를 강조하고자 분열 요소로 끌어내서 생성된 분열문이다. 이 때, Marie는 신정보가 되고, 종속절의 내용('누군가가 이 컴퓨터를 부쉈다')은 전제가 된다. 여기에 누군가가 컴퓨터를 고장 냈다는 전제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발화를 덧붙여 예문 (38b)를 얻을 경우, 앞서 살펴보았던 약한 전제유발자의 경우와는 다르게 두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다. 애초에 분열문이 유발하는 전제는 그 전제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분열문이 성립

42) Abusch는 '전제 미지 문맥'을 덧붙이면서 조건절(si절)의 형태를 취한 것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조건절의 사용 또한 '가정'이라는 본질적인 성격으로 인해 전제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모든 전제 유발자에 동일한 기제와 문맥을 적용하여 각각의 전제의 취소 가능 정도를 비교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분석 기준으로서의 조건절의 사용은 분석 대상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되지 않는다. 전제(이 경우, ‘Quelq’un a brisé cet ordinateur‘)는 분열문이 생성되기 전 문장(Marie a brisé cet ordinateur)의 명제를 구성하기에 전제가 없어지면 분열 구문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분열 구문에서의 전제는 통사적으로 강력하게 유발되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 그 결과 두 문장은 매우 어색한 연결을 이룬다. 그러므로 분열 구문은 취소되지 않는 전제를 유발하는 강한 전제유발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 2.2.2.2. 감정적 사실동사

감정적 사실동사란, 사실성을 지닌 어휘 중,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를 일컫는다. 보문절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구문으로, 보문절, 또는 그 감정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한다. 아래 예시는 감정적 사실동사가 사용된 구문이, 유발되는 전제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문맥과 양립 불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9) *Je ne sais pas si Paul a commis une erreur.* #Mais si Paul *regrette* qu’il a commis une erreur, il va probablement corriger sa phrase.

위 예문 (39)에서 두 번째 문장의 regretter동사에 의해 ‘Paul a commis une erreur’가 참으로 전제된다. ‘Paul 이 실수를 했다’는 전제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문맥이 앞서 올 경우, 이는 이 전제를 지니는 regretter동사와 충돌한다. 후회의 감정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반드시 참이어야 하고 취소될 수 없다. 즉, 만약 Paul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혹은 이에 대해 무지하다면, 후회의 감정을 드러내는 명제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예문 (39)의 두 문장은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으며 어색한 문맥을 형성하며 감정적 사실동사는 강한 전제유발자의 성격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2.2.3. 한정 구문

지시형용사, 정관사, 소유형용사 등이 형성하는 한정 구문은 명사를 수식하면서 그 명사의 존재를 전제한다(présupposition existentielle).

정관사의 전제유발자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Horn(1986)은 의미구조의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한다. 문장의 의미구조에 의하면 문장의 주제부(thème)는 구 정보를, 서술부(rhème)는 신 정보를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구조를 고려한다면, 한정사가 포함된 명사구가 주제부에 있을 경우와 서술부에 속해있을 경우에 각각 전제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음은 정관사를 동반한 명사구가 각각 주제부와 서술부에 나타난 예이다.

(40) a. *Le roi de France* est de Gaulle?
b. De Gaulle est *le roi de France*?

구 정보를 전달하는 주제부는 화자와 청자 모두 이미 알고 있는 전제된 내용이다. (40a)의 경우, le roi de France는 주제부에 나타나므로 이때의 정관사는 프랑스 왕의 존재를 전제하게 된다. 반면, (40b)의 경우, le roi de France가 서술부에 등장한다. 의미구조 상 서술부는 신정보를 전달하고, 따라서 전제된 주제부에 대한 명제 차원의 기술인 것이다. (40b)는 프랑스 왕의 존재를 전제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de Gaulle이 왕인지 즉, 프랑스가 군주제인지를 묻고 있는 질문인 것이다. 이를 통해, 정관사가 서술부에 사용되었을 때는 본래 정관사가 유발하는 전제가 약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관사를 동반한 명사구가 서술부에 나타나 신 정보를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한 전제유발자의 성격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소유형용사나 지시형용사의 경우, 이들이 속한 명사구가 의미구조상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상관없이 고유한 존재적 전제를 유발한다. 다음은 소유형용사가 주제부, 서술부에 위치하여도 전제가 유보되지 않는

예시이다.

(41) a. *Ma* voiture est Renault cooper.
b. Renault cooper est *ma* voiture.

(41a)와 (41b)는 각각 소유형용사가 주제부와 서술부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위에서 정관사가 주제부와 서술부에 사용되었을 때와는 다르게 두 예문에서 소유형용사 ma가 유발하는 전제의 강도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서술부에 기재되어 신정보를 구성하면서도 그 안에서 전제를 유발한다.[43]

정리해보자면, 같은 한정사이더라도 소유형용사와 지시형용사는 강한 전제유발자의 속성을 띠는 반면, 정관사의 경우, 주제부에 등장한다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강한 전제유발자의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44]

---

43) 소유형용사의 경우 1인칭과 2,3인칭일 경우, 전제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1인칭의 경우, 소유격의 사용은 소유주가 '자신'이므로 확실성이 뚜렷하다. 다만, 2,3인칭 소유격의 경우, 얼마든지 앞, 뒤 문맥에 의해 소유의 전제를 취소시킬 수 있다.

(48) Je ne sais pas si Marie a un frère. Mais si son frère vient ce soir, la fête sera amusante.

위 문장의 발화자는 Marie의 남동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것으로, 화자 자신의 상황에 대한 무지함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1인칭 소유격을 사용했을 때보다 의미적으로 자연스러운 맥락을 형성한다.

44) Abusch(2002)는 한정사가 강한 전제유발자인지 약한 전제유발자인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다. 약한 전제유발자와 강한 전제유발자 사이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으며 학자들의 주장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정사는 전제유발자의 분류에 대해 가장 논쟁적인 항목 중 하나이다. 관사의 존재적 전제는 경우에 따라 약한 전제와 강한 전제의 성격을 지니고 소유형용사의 경우, 강한 전제유발자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한정사를 강한 전제유발자의 카테고리로 구분하되, 소유 형용사와 지시형용사를 관사와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2.2.2.4. 함축부사

함축 부사에는 fortement, également, toujours등이 있는데 그 중 aussi를 다루겠다. Aussi는 '～도'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문장에 추가되는 부사이다. 따라서 명제에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사건이 이전에도 행해졌다는 것을 전제하게 된다. 해당 전제에 대해 명백하게 무지한 문맥이 놓였을 경우, 전제가 취소될 수 있는지 다음 예를 통해 살펴보자.

(42) *Je ne sais pas si Paul a lu la proposition.* #Mais si Marie l'a *aussi* lu, demondons-leur de nous donner simplement une réponse par oui ou non.

(Abush, 2010)

위 예문 (42)에서 부사 aussi는 앞문장의 Paul또한 제안서를 읽었다는 전제를 유발한다. Abrusán(2016)에 의하면 aussi와 같이 부가적인 요소(composant additif)는 대용 요소를 전제하는데, 다시 말해 이 대용요소를 담화의 앞선 문맥에서 찾을 수 있을 경우에만 적절하게 전제가 유발된다고 보았다.[45] 위 예문의 경우, 이 대용전제에 반하는 내용을 덧붙임

45) Abrusán(2016)은 aussi와 같은 부가적 요소(additive particles)의 전제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다. 부가적 어휘는 문맥상에서 대용 요소(anaphoric component)를 필요로 하고, 이 요소가 선행하는 담화(active context) 상에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다음 a와 같은 문장이 발화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b는 a의 aussi에 의해 유발되는 전제이다.

a. Pierre a invité Marie pour dîner aussi.
b. x a invité Marie pour dîner, x ≠Pierre (x : anaphoric variable)

a와 같이 발화하기 위해서는 'Pierre는 아닌 누군가 x가 Marie를 저녁에 초

으로서 부적절한 연결을 이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색한 연결을 이룬다는 점에서 aussi와 같이 특정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문장에 추가되는 요소들에 의해 유발되는 전제는 취소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그 결과 함축 부사 aussi는 강한 전제유발자임을 알 수 있다.

### 2.2.2.5. 비한정적 관계절

비한정적 관계절은, 대상에 대한 부가설명을 제공하는 관계절로, 발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 정보가 아니라 이미 전제된 정보이다. 아래 예를 통해 비한정적 관계절이 유발하는 전제가 취소 가능한지 살펴보자.

(43) *Je ne sais pas si Marie est la plus grande de sa classe.* # Mais si Marie qui est la plus grande de sa classe, ne peut toucher cette étagère, personnne ne peut le faire.

비한정적 관계절은 관계절이 걸리는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수식한다. 따라서 전제되는 내용은 수식받는 대상에 대한 부가설명이다. (43)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미 수식의 대상과 관계절은 주제부를 이루며 구정보를 구성한다. 해당 명제는 Marie가 반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구정보로 이미 전제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신정보는 'Marie가 찬장에 손이 안 닿는다면, 그 아무도 닿을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애초에 관계절을 구성할 때는, 그 대상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가 어려운 전제로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관

---

대했다'는 내용이 앞선 발화의 문맥에서 드러나야 한다. Abrusán은 만약 a와 같은 발화가 아무런 문맥에 속하지 않은 채로 느닷없이 발화되었다면, 이는 적절하지 못한 발화라 보았다. 즉, aussi에 의한 전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대화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는 문맥(active context)에서 대용 요소를 찾을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계절이 유발하는 전제는 이미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 약화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전제에 대해 모르는 문맥과 한 문맥에서 양립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비한정적 관계절 또한 강한 전제유발자의 성격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2.2.2.6. 비교 구문

비교 구문은 비교의 의미를 지닌 어휘가 que 와 함께 사용된 구문이다. 비교 구문은 비교되는 대상이 신정보를 구성하는 성질을 내포한다는 전제를 유발한다. 아례 예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은 Carole이며, 비교되는 대상은 Max이다.

(44) *Je ne sais pas si Max est linguiste.* # Mais si Carole est une linguiste *plus* compétente *que* Max, Carole va prendre en charge de ce projet.

위 예문에서 plus...que...비교구문은 'Max가 언어학자이다'라는 전제를 유발한다. 비교구문은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과 비교되는 대상의 어떠한 공통적인 속성에 대해 우위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비교되는 대상과 비교하는 대상이 동등한 속성을 지닌다는 전제가 유발되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기술한다면, 동등한 속성을 지니지 않는다면, 비교급을 사용할 수 없다. 위 예문 (44)에서 "Carole est une linguiste plus compétente que Max" 라고 기술하기 위해서는 Max가 물리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언어학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전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문맥을 덧붙인다면, 비교급의 사용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므로 그 결과 두 문장은 이상한 문맥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대조 구문은 강한 전제 유발자의 성격을 지닌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2.2.2.7. 시간절

시간절[46]이 사용된 구문은 발생한 사건의 순서를 명시하는 명제로, 비교되는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는 전제를 유발한다.

(45) *Je ne sais pas si Paul est arrivé*. #Mais si Marie est parti dès que Paul est arrivé, ils seraient vus.

예문 (45)에서처럼 원래 문장에서 발생한 사건의 순서가 시간상으로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에 이에 대해 무지한 문맥은 나란히 놓일 수 없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는지 무지한 상황에서 시간상으로 그 사건 앞뒤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백하게 직선상에 시간상으로 기재할 수 있게끔 시간절이 사용된 경우에는 앞선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를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시간절 또한 강한 전제유발자로 분류할 수 있다.

### 2.2.2.8. 반복성 어휘

반복성 어휘는 의미상으로 반복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과거에 동일한 행위가 일어났었다는 것을 전제한다. 다음은 반복성 어휘 revenir동사가 사용된 문장에 이로 인해 유발되는 전제에 대해 모른다는 문맥을 덧붙여 본 예이다.

(46) *Je ne sais pas si Paul est venu à cette exposition auparavant.* #Mais si Paul revient aujourd'hui, l'organisateur va être content.

---

46) 전제유발자의 유형 분류에서는 전제를 유발하는 것이 시간에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 속성으로 '시간성'으로 분류하였다면, 전제유발자의 강도 분류에서는 시간절에 조작을 가하므로 '시간절'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위 예문 (46)에서 사용된 revenir동사는 '이미 예전에 왔었다'는 전제를 접두사 re-로 인해 강력하게 지니고 있다. 여기서는 '발화 시점 전에 이 전시회에 온 적이 있다'는 전제를 유발한다. 이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반복성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강한 전제유발자의 성격을 지닌다.

### 2.2.2.9. 반사실적 조건절

반사실적 조건절은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조건절로 가정하여 화자의 소망이나 상상을 전달하는 구문으로, 조건절에 가정된 상황과 반대인 현실을 전제하게 된다. 반사실적 조건절은  화자의 상상을 기술하는 것으로, 가정 문장의 주어 인칭과 가정하는 상황에 따라 유발하는 전제의 성격이 달라진다.[47] 1인칭 화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발화 할 경우, 화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모를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 적용해온 'Explicit Ignorance Context'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화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가정하여 발화한 경우, 이는 전제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

(47) #*Je ne sais pas si j'ai un yaucht*, mais si j'avais un yaucht, je voyagerais le monde.

---

47) 반사실적 조건절은 대개 강한 전제유발자의 성격을 보이지만, 화자가 자신이 아닌 남의 상황을 추측하여 반사실적 조건절을 발화하는 경우에는 남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바탕으로 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가 유보될 수 있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Je ne sais pas si tu es riche*, mais si tu n'était pas riche, tu ne pourrais pas vivre dans une maison si grande.

원래 두 번째 문장에서 유발되는 전제는 'tu est riche'이다. 그런데 덧붙여진 문맥에서 청자가 부자인지 모르는 화자가 명시되어도 'tu est riche'라는 전제는 화자의 생각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와 부합하지 않는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유보되는 것이다.

위 문장에서 반사실적 조건절에 의해 '나는 현재 요트가 없다' 는 전제가 유발되며 발화자는 '내가 요트가 있었다면, 세계여행을 했을 텐데'라고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한다. 이 문장에서 전제에 대해 무지한 문맥을 덧붙이게 된다면, '나는 내가 요트가 있는지 모르지만..'이 되는데, 화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가 1인칭일 경우의 가정문은 그 전제가 취소되기 어렵다.

가정하는 상황이 '비가 온다' '삼성이 새로운 휴대폰을 개발하였다' 등과 같이 객관적인 사실인 경우에도 각각의 유발된 전제는 취소되지 않는다. 반사실적 조건절이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전제되는 현실이 취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사실적 조건절은 추측의 경우를 제외하고 강한 전제유발자임을 알 수 있다.

### 2.2.2.10 의문문

앞서 분류한 세 종류의 의문문 중, 의문사를 포함하는 부분의문문 q*uestion avec le mot interrogatif*의 경우를 살펴보자.

(48) *Je ne sais pas s'il a ouvert la porte*, # mais comment il a ouvert la porte?

원 문장 'Comment il a ouvert la porte?'는 'il a ouvert la porte'라는 전제를 지닌다. 즉, 이미 문이 열려 있는 상황이 전제되고 화자는 열려있는 문을 보며 발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과 반대되는 문맥을 덧붙인다면, 이는 비문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상황에 대한 인지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 2.2.3. 약한 전제유발자

약한 전제 유발자란 유발하는 전제가 다양한 화용론적 요소의 영향을 받아 취소될 수 있는 것들을 일컫는다. 앞선 전제유발자의 종류를 바탕으로, 각각의 전제유발자가 어떠한 기제를 통해서 약한 전제유발자로 분류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 2.2.3.1. 인지적 사실동사

인지적 사실동사는 사실성을 내포하는 어휘 중, 인지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보문절의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하는 의미적 유발자이다. 인지적 사실동사 découvrir동사가 등장하는 예를 살펴보자.

(49) a. Si John *découvre* que Marie le trompe, il sera triste.
≫ Marie trompe John.
b. *Je n'ai aucune idée si Marie trompe John.* Mais s'il le découvre, il sera triste. (Abrusán, 2016)

예문 (49a)에서는 인지적 사실동사 découvrir동사에 의해 'Marie가 John을 배신한다.'라는 전제가 유발된다. (49b)는 (49a)에 이 전제를 무효화하는 문맥 (*Je n'ai aucune idée si Marie trompe John.*)을 덧붙여 연결한 것이다. 이 때, 문장 (49a)에서 유발되었던 전제는 앞선 문맥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약해진다. 따라서 두 문장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다. 이는 découvrir 동사가 유발하는 전제가 유발자 découvrir와 견고하게 결부되어 있지 않고 문맥이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약한 전제유발자가 유발하는 전제의 강도는 발화 문맥 뿐 아니라 화자

의 인칭의 영향에도 변화한다. 인지적 사실동사 découvrir동사가 사용된 아래 두 예문을 비교해보자.

(50) Si Paul *découvre* que Marie est à Londre maintenant, il va se fâcher.
≫ Marie est à Londre maintenant.

(51) Si *je découvre* que Marie est à Londre maintenant, je serai en colère.

(Chierchia&McConnell-Ginet, 1990)

위 예문 (50)과 (51)은 모두 사실성 술어 découvrir에 의해 que절의 내용 'Marie 가 현재 런던에 있다'는 전제를 지닌다. 그런데 예문 (51)의 경우 일인칭 화자*je*가 사용되고, 가정의 의미의 조건절*si*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화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50)보다 이 전제가 비교적 약하게 유발된다.[48] 그렇다고 해서 (50)의 전제도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위 예문(50)의 발화를 들은 상대방이 아래와 같이 대답하였다고 가정해보자.

(52) Mais Marie est partie Londre hier soir, donc Pierre ne va pas être en colère.

위 대답은 (50)에서 유발되었던 전제('Marie est à Londre maintenant.')를 무효화 하는 문맥이다. 이 대답으로 인해 이 전제는 자연스럽게 취소된다. 따라서 예문 (50)의 전제는 (51)에서 보다는 전제유발자와의 결합이 견고하지만, 그조차도 상황이나 문맥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예를 통해 인지적 사실동사가 유발하는 전제는 그와 무관한 또는 부인하는 문맥이 앞, 뒤에 위치했을 경우, 쉽게 약해지거나 취소되며 문장

48) 이는 1.2.2장 전제의 취소가능성에서 다루었음.

의 연결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인지적 사실동사는 약한 전제유발자로 분류할 수 있겠다.

### 2.2.3.2. 상태변화 어휘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상태변화 어휘는 의미상으로 발화에서 지시하는 시점과 관련된 어떠한 상태를 전제한다. 아래 예는 상태변화 동사 arrêter가 사용되어 이에 따른 전제가 유발되어야 하지만 화자는 이에 대해 무지한 경우이다.

(53) *Je remarque que vous mâchez votre crayon.* Avez-vous récemment *arrêter* de fumer?

(Geurts 1994)

예문 (53)에서 두 번째 문장 'Avez-vous récemment arrêter de fumer?'을 발화하는 화자는 상태변화 동사 arrêter의 의미가 유발한 'vous fumiez jusqu'à récemment'이라는 전제를 인지하고 의문문을 제기한다. 그런데, 첫 문장의 화자는 상대방이 담배를 피웠었는지 모르는 상태이다. 그 결과, '상대방이 연필을 씹는다.'는 명제 상의 정보만을 가지고 '상대방이 담배를 피웠었는지'에 대한 추정을 하는 맥락을 구성하게 된다. 이 두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추정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arrêter에 의해 유발된 전제가 이 전제에 대해 무지한 덧붙여진 문맥(Je remarque que vous mâchez votre crayon.)에 의해 약해지기 때문이다.

아래 예시는 주택가에 뿌려진 전단지 문구로, 2001년에 금연을 하였다면, 금연보상기금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54) Si vous avez *arrêté* de fumer en 2001, vous avez droit à un versement du "Tobacco Indemnity Fund".

(Kadmon 2001)

위 예문 (54)에서 상태변화 동사 arrêter는 '멈추다'라는 의미로, '어떠한 상태(여기서는 흡연상태)가 이전에 지속되었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조건절만 살펴본다면 arrêter동사에 의해 '2001년 이전에 독자vous는 흡연을 하였다'는 전제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이 때, 전단지의 특성상 해당 문구의 화자는 전단지를 보게 되는 독자가 흡연을 하던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따라서 전제유발자 arrêter가 유발하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맥락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이는 담화의 종류라는 화용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 상태변화 동사 arrêter에 의해 유발된 전제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예를 통해 보았을 때, 상태변화 동사는 화용적으로 유발된 약한 전제유발자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2.2.3.3. 성취 동사

의미상으로 전제를 유발하는 어휘 중, 반복성, 사실성, 상태변화 어휘군으로 분류되지 않는 어휘들을 종합해 함축 어휘로 분류했었다.[49] 함축 어휘 중 réussir, gagner, achever등과 같은 성취와 관련된 동사를 성취 동사(verbes d'achèvement) 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성취 동사는 사행의 과정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사행의 결과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따라서 성취 동사의 사용은 그 결과가 있기 위한 과정을 자연스럽게 함의하게 된다. 성취 동사가 사용된 아래 예를 살펴보자.

(55) *Je ne sais pas si Pierre a participé au marathon hier,* mais s'il a *gagné*, il va célébrer ce soir.

성취 동사는 의미적으로 성취를 위한 준비과정에 참여하였다는 전제를

49) 2.2.1. (vi) 참조.

유발한다. 예문 (55)에서 gagner동사는 '마라톤에서 우승하다'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Pierre가 경기에 참가하였다'는 전제를 지닌다. 그런데 밑줄 친 부분은 이 전제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문맥이 이어져도 발화는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다. 즉, 앞에 덧붙여진 문맥이 전제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영향으로 인해 성취 동사 gagner의 전제가 자연스럽게 약화되어 두 문장의 논리적 연결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함축 어휘중 성취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가 유발하는 전제는 그 앞 뒤 문맥의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맥이 그 전제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유보된다. 따라서 성취 동사는 약한 전제유발자로 분석된다.[50]

### 2.2.3.4. 의문문

전제 유발자 기능을 하는 의문문은 총 oui/non question, question alternative, question avec le mot interrogatif로 세 가지가 있었다. 이 중 oui/non question과 question alternative에 'explicit ignorance context'기제를 적용해본 예시를 살펴보자.

(56) *oui/non question*

*Je ne sais pas s'il y a ou pas de professeur de linguistique à MIT*. Y a-t-il un professeur de linguistique à MIT?

(57) *question alternative*

*Je n'ai aucune idée si Dakar est au Sénégal ou en Côte d'Ivoire.* Mais est-ce que Dakar est au Sénégal ou en Côte

50) 모든 함축 어휘가 약한 전제유발자는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Abusch(2002)의 분류를 바탕으로 성취 동사에 대한 분석만을 하였다.

d'Ivoire?

예문 (56)는 예/아니오로 답하는 질문에 'explicit ignorance test'를 적용해본 결과이다. 본래 해당 의문문은 'oui인 상황이거나 non인 상황이다'라는 전제를 유발한다. 이를 (56)의 의문문에 적용해본다면, 유발되는 전제는 'Soit il y a un professeur de Linguistique à MIT ou soit il n'y en a pas'이다. 전제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지 않고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이에 대해 무지한 문맥은 단지 이어지는 질문의 전제를 명제 차원으로 명시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두 문장은 덧붙여진 문장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해 확인하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문맥을 이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문 (57)의 경우에도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선택형 의문문으로 전제 또한 '다카르가 세네갈에 있거나 코트디부아르에 있다'라는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다카르가 세네갈에 있는지 코트디부아르에 있는지 모른다는 문맥이 연계되어도 의문문의 전제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을 확일 할 수 있다. 그 결과 oui/non 의문문과 선택형 의문문은 약한 전제유발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의문문이 유발하는 전제에 대해 무지한 문맥을 덧붙여도 자연스러운 문맥이 유지된다.

## 2.3. 교차적 분석 : 전제유발자의 유형과 강도

전제의 취소가능성은 전제 연구가 시작되면서부터 전제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어떤 전제는 다른 전제보다 문맥상에서 더 쉽게 취소된다. 전제의 취소가능 정도가 전제를 유발하는 요인에 의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인지함으로서 전제유발자마다 유발하는 전제에 대한 취소 가능 여부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전제유발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전제유발자가 유발하는 전제의 강도에 따라 강한 전제유발자와 약한 전제유발자로 분석 및 분류하였다. 먼저 2.2장에서는 어휘의 의미 속성이

전제를 유발하는 경우와, 실질적 의미가 결여된 통사 구문이 전제를 유발하는 경우를 분류하였다. 2.3장에서는 전제유발자가 유발하는 전제가 의미적[51]인지 화용적인지에 따라 즉, 전제가 문맥 등과 같은 화용론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 유보되거나 취소되는지에 따른 전제유발자의 강도에 따른 분류를 시행하였다. 앞서 보았던 전제 유발자의 특징들을 통해 각 전제유발자의 유형과 강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able>
<tr><td rowspan="8">의미 속성<br>전제유발자</td><td colspan="2">반복성</td></tr>
<tr><td rowspan="3">사실성</td><td>인지</td></tr>
<tr><td>감정</td></tr>
<tr><td>판단</td></tr>
<tr><td colspan="2">상태변화</td></tr>
<tr><td colspan="2">시간성</td></tr>
<tr><td colspan="2">비교</td></tr>
<tr><td rowspan="2">기타<br>함축속성</td><td>aussi</td></tr>
<tr><td>성취동사</td></tr>
</table>

<table>
<tr><td rowspan="7">통사 구문<br>전제유발자</td><td colspan="2">한정 구문</td></tr>
<tr><td colspan="2">분열 강조 구문</td></tr>
<tr><td colspan="2">반사실적 조건절</td></tr>
<tr><td colspan="2">관계절</td></tr>
<tr><td rowspan="3">의문문</td><td>oui/non</td></tr>
<tr><td>alternatif</td></tr>
<tr><td>mot interrogatif</td></tr>
</table>

강한 전제유발자
약한 전제유발자

< 표 4 > 전제유발자 유형과 강도

51) 여기서의 '의미적' 전제유발자라는 것은 첫 번째 분류에서 사용한 '어휘·의미적'에서의 '의미적'과 구별된다. 후자는 어휘의 의미에서 전제가 유발된다는 점에서 전제유발자의 형태를 일컫는 반면, 전자는 화용적 전제유발자와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의미적' 전제유발자를 지칭한다.

| 전제유발자 강도 / 전제유발자 유형 | 약한 전제유발자 | 강한 전제유발자 |
|---|---|---|
| 의미 속성 전제유발자 | 인지적 사실동사<br>상태변화 어휘<br>함축 어휘 (성취 동사) | 감정적 사실동사<br>함축 어휘 (aussi)<br>반복성 어휘<br>시간절<br>비교 구문 |
| 통사 구문 전제유발자 | 의문문 | 분열 강조 구문<br>한정 구문<br>관계절<br>반사실적 조건절<br>의문문 |

< 표 5 > 전제유발자 유형과 강도의 교차 분석

전제유발자 유형 중 강한 전제유발자와 약한 전제유발자를 명암으로 표현하고(< 표 4 >), 이를 정리한 것이 < 표 5 >이다.

전제유발자가 어휘 의미의 형태를 띠는 경우, 그 의미 속성에 따라 약한 전제유발자와 강한 전제유발자의 성격을 보인다. 어휘의 의미가 단지 전제의 내용을 인지한다거나 어떠한 상태에 대한 정보만을 1차적으로 기술하는 경우 해당 전제는 비교적 쉽게 취소되는 약한 전제유발자의 성격을 보였다. 반면, 전제 유발 어휘가 전제 내용에 대해 2차적으로 감정을 나타내거나, 동일한 사건이 행해졌다는 전제를 유발하는 등 어떠한 상태

나 행위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나타내는 어휘의 경우에는 취소가 어려운 강한 전제유발자의 성격을 나타내었다.

의미 속성이 결여된 통사적인 기제(문법적 속성)가 전제를 유발하는 경우에도 약한 강도와 강한 강도가 모두 나타났다. 다만, 그 비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강한 전제유발자의 성격을 지닌 유발자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다. 분열 강조 구문, 관계절, 반사실적 조건절, 그리고 의문문과 같이 통사적인 기제에 의해 전제가 강하게 유발되는 것은, 전제와 통사의 결속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즉, 전제가 통사와 결부되어 있을 시에는 전제에 반하는 문맥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통사적 전제 유발자는 통사 구조에 의해 전제가 유발되므로 통사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전제가 사라지지 않으며, 문장 구성 차원에서 이미 유발된 전제가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의미상으로 전제를 유발하는 요소들이 화용론적 요소들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 것은, 통사 차원이 아닌, 단어 개개의 차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유보되어 주어진 문맥과 어우러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전제유발자의 유형과 강도 사이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문법 의미로부터 전제를 유발하는 경우, 통사적인 기제에 의해 전제가 유발되기에 상대적으로 강한 전제유발자의 성격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의미 속성 유형의 유발자의 경우, 그 강도에 있어서 특정한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없겠다. 그 의미가 전제된 내용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는 유보 가능한 약한 전제유발자, 그 의미가 내용과 결부되어 있지 않아 전제가 투사될 수 있는 경우는 강한 전제유발자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 Ⅲ. 전제유발자 강도에 따른 담화 효과

전제유발자는 그 기능의 강도에 따라 약한 전제유발자와 강한 전제유발자로 분류되었다. 그 강도의 차이는 전제유발자 본연의 고유한 속성 이외에도 해당 유발자가 사용된 담화 맥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제 담화에서 사용되었을 때 어떠한 담화 효과를 창출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전제유발자의 강도에 따른 담화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분석 대상으로 광고 언어를 선정하였다. 광고는 간결한 문구를 통해 집약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소비자를 설득하여야 하는 목적을 지닌다. 전달하는 메시지가 강요적이어서도 안 되며 경쟁사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 또는 타사와의 비교도 삼가야하기 때문에 광고 언어에는 이를 암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언어적 장치인, 전제 현상이 빈번하게 사용된다. 광고주는 전제를 통해 외연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정보를 암시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2.2장의 강한 전제유발자와 약한 전제유발자 분류를 바탕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전제유발자가 사용된 광고에서 어떤 담화효과를 창출하는지 분석함으로써 담화 효과상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 3.1. 광고 텍스트에서의 전제유발자와 담화 효과

본 장에서는 강한 전제유발자와 약한 전제유발자의 담화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강한 전제유발자와 약한 전제유발자가 사용된 광고를 분석하고, 이들이 함께 사용된 광고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어떻게 상보적으로 광고 메시지를 구성하는지 살필 것이다.

### 3.1.1. 강한 전제유발자가 사용된 광고

[ 사진 1 ] 강한 전제유발자가 사용된 광고 1

| | |
|---|---|
| 광고 문구 | Bien sûr, nous avons ajouté le Fluor, le Calcium et la Vitamine E, mais ***c'est*** Antoine ***qui*** a choisi le goût. |
| 사용된 전제유발자 | 분열 강조 구문 (c'est... qu..) |
| 명제 | C'est Antoine qui a choisi le goût. |
| 전제 | Quelqu'un a choisi le goût. |

< 표 6 > [ 사진 1 ] 광고 문구 정리

위 지면광고는 Signal사의 아동 치약 광고이다. 광고 중간부에 분열 강조구문이 사용된 표제 문구가 있으며, 위로는 사진, 아래에는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표제 문구에 사용된 분열 강조 구문이 이미지와 함께 어떠한 담화효과를 창출하는지 살펴보겠다.

사진의 위쪽에는 어린 소년이 옆의 어른의 손을 잡고 있다. 이 때, 소년은 고개를 뒤로 약간 젖힌 채로 당당하게 독자를 쳐다보고 있는 반면, 어른은 얼굴을 제외한 몸만 제시되었다. 소년과 어른은 모두 과학자 또는 의사인 것 마냥 흰색 가운을 입고 있으며 소년은 빨간 파일을 들고 있다. 바로 밑의 문구에는 'Bien sûr, nous avons ajouté le Fluor, le Calcium et la Vitamine E, mais c'est Antoine qui a choisi le goût.'라는 표제 문구가 주어진다. 표제 문구 아래로는 치약의 권장 사용 나이, 성분, 특징, 이 치약을 사용할 때의 장점 등이 서술되어 있다. 서술문 중간에는 아동용 치약의 사진과 칫솔이 두 다리를 지닌 것과 같이 익살스럽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제 문구에서 사용된 c'est.. que... 분열 강조 구문은 통사적으로 전제를 강하게 유발하는 유발자이다. 분열 강조 구문 'c'est Antoine qui a choisi le goût'에 의해 'quelqu'un a choisi le goût'라는 전제가 강하게 유발된다. 이는 강한 전제유발자이기에 어떠한 맥락이 와도 '어떤 아이가 선택한 맛이다'라는 전제는 불변이다. 여기서 어떤 아이는 Antoine일 것이고, 광고 위쪽에 어른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 아이와 어른이 흰색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의 일종인 치약에 대한 전문가의 이미지를 느끼게 함으로서 해당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주기 위함이다. 표제 문구의 앞부분을 이루는 'nous avons ajouté le Fluor, le Calcium et la Vitamine E'라는 부분은 치약에 포함된 좋은 성분을 나열한 것으로, 연구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이와 어른의 모습과 어우러져 치약 성분에 대한 신뢰감을 준다. 일반적으로 몸에 좋지 않은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면, 맛이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문맥에도 뒤이은 분열 강조 구문에 의해 그 맛은 이미 Antoine이라는 아이가 선택한 것이라는 전제는 변함이

없다. 어른의 손을 잡고 있는 Antoine의 의기양양한 표정은 이러한 성분과 맛에 대한 더욱 깊은 신뢰를 준다. 즉, 통사적인 강한 전제유발자를 사용함으로써 취소될 수 없는 전제로 '아이가 선택한 맛'이라는 점을 전달함과 동시에 아이와 어른의 이미지를 통해 '치약이 영양도 풍부하지만 맛도 보장되어있다'는 내용을 객관적이고 자신 있게 내보이는 느낌을 초래한다. 그 결과 소비자는 해당 치약에 대한 정보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다음은, 분열 강조 구문이 사용된 공익 광고이다.

[ 사진 2 ] 강한 전제유발자가 사용된 광고 2

| | |
|---|---|
| 광고 문구 | L'effet de serre dû à la pollution réchauffe la planète. ***C'est*** maintenant ***qu'***il faut agir. Offrons à mes enfants une planète vivante. |
| 사용된 전제유발자 | 분열 강조 구문 (c'est... qu..) |
| (명제) C'est maintenant qu'il faut agir.<br>(전제) Il faut agir un jour. | |

< 표 7 > [ 사진 2 ] 광고 문구 정리

다음은 분열 강조 구문이 사용된 상업 광고가 아닌 공익성이 더 부각되는 비정부기구의 광고이다. 광고 주체는 전 지구적인 자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정부 기구인 세계 자연 기금(WWF, World Wildlife Foundation)이다. 광고 문구는 오른쪽 위에 위치해 있으며, 이미지로는 바다의 빙산을 아이스크림의 형태로 시각화하여 마치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는 형상을 드러내고 있다.

광고 문구를 살펴보자. 환경오염으로 인한 온실효과가 지구의 온도를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광고 이미지로부터 유추해 보자면, 지구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바다의 빙산들을 녹여 해수면 상승을 초래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문구 'C'est maintenant qu'il faut agir'에는 c'est que 분열문이 사용되었다. 이는 원문장 'Il faut agir maintenant'에서 'maintenant'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C'est que 분열 강조 구문은 문맥에 의한 전제 취소가 비교적 어려운 강한 전제유발자이다. 이 유발자가 유발하는 전제는 'Il faut agir un jour'로, '우리는 언젠가는 행동(실천)해야 한다.'이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 명제 상에서 그 언젠가가 '지금maintenant'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C'est maintenant qu'il faut agir' 대신, 원 문장인 'Il faut agir maintenant'이라고 쓰여 있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전달하는 메시지는 두 문장 모두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동일하다. 다만, 원 문장의 경우, 독자가 maintenant에 특별히 강조를 두어 문구를 읽지 않는 이상, '지금'이라는 시점이 부각되지는 않는다. 그저 행동의 필요성과 의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친다. 또한, 시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모두 신정보로 제시하는 것과 같다. 반면, C'est.. que분열문의 사용으로 'maintenant'을 강조하게 될 경우, 행동의 필요성과 의무는 광고주와 독자 사이에 이미 암묵적으로 동의된 구 정보(전제)로서 함의되고, '지금'이라는 시기가 중요한 정보로 전달되게 된다. 즉, 'Il faut agir'의 내용을 전제, 즉, 구정보로 전달함으로써 독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 상정하는 것이다. 분열 강조 구문을 사용함으로 인해 광고주는 행동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시

민들이 이미 자각하고 있다고 함의하며, 그 시기가 '지금'이어야 한다는 긴박감을 명제를 통해 전달한다. 해당 문구를 접한 독자들도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며 'maintenant'에 주목하게 된다.

강한 전제유발자에 의해 유발된 전제는 상대적으로 그 강도가 세서 문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어떠한 문맥에도 해당 전제의 내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전제 내용에 반하는 문맥에도 유보되지 않는 해당 유발자의 성격은 '행동해야 한다'는 전제가 어떠한 반박에도 변함이 없다는 점으로 드러난다. 자연 보호를 선동해야 하는 기구 입장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함의하여 전달하고자 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정리해보자면, 위 광고에서 사용된 전제현상은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광고주에게 뿐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광고를 접함과 동시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끔 하는 효과를 창출한다. 즉, 행동에 대한 촉구가 메시지의 주가 아니라, 이는 당연한 것이며, 그 시기가 지금이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정보이다. 게다가 해당 전제를 유발하는 것이 강한 전제유발자라는 점은 전제 내용에 힘을 실어 절대적인 사실인 것 마냥 전달하는 효과를 보인다. 이에 입각하여 소비자는 행동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다.

[ 사진 3 ] 강한 전제유발자가 사용된 광고 3

| | |
|---|---|
| 광고 문구 | *Si* les laboratoires ROCHE *avaient* mis à disposition leur nouveau médicament anti sida, le T 20, ce malade *serait* peut-être encore en vie. |
| 사용된 전제유발자 | 반사실적 조건절 |
| (명제) Si les laboratoires ROCHE avaient mis à disposition leur nouveau médicament anti sida, le T 20, ce malade serait peut-être encore en vie.<br>(전제) Les laboratoires ROCHE n’avaient pas mis à disposition leur nouveau médicament anti sida. | |

< 표 8 > [ 사진 3 ] 광고 문구 정리

위 광고는 에이즈치료제를 개발한 스위스 제약회사 Roche를 비판하는 에이즈 관련 기구의 광고이다. Roche사는 죽음의 병이라 불리던 에이즈의 치료제 푸제온(fuzeon, T 20 또는 enfuvirtide라 불림)을 개발하였지만 약의 공급에 있어 엄청난 제약을 걸면서 약 가격을 비합리적으로 책정하였다. 그 결과, 전 세계의 에이즈 환자들이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나가는 현실에 대해 에이즈 관련 기구는 Roche의 제품을 보이콧하는 광고를 제시한 것이다.

광고 문구를 살펴보자. 표제 문구에는 반사실적 조건절이 사용되었다. 반과거와 조건법 현재의 사용은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하며 '~(으)면, ~을 텐데'의 의미를 지닌다. 광고의 아래쪽에는 Roche제품을 보이콧하자는 문구와 함께 약국에서 Roche제품을 타사 제품으로 대체를 요구하자는 내용이 작은 글씨로 제시되어 있다. 이미지로는 흰 덮개 아래로 환자의 두 발이 보이고, 발가락에 '2001년 10월 15일 사망' 이라는 글귀가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고 문구에서 언급된 'ce malade'의 발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표제 문구에 사용된 반사실적 조건절은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상상이나 아쉬움, 또는 안타까움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위 광고에 사용된 반사실적 조건절 'si les laboratoires ROCHE avaient mis à disposition leur nouveau médicament anti sida, le T 20, ce malade serait peut-être encore en vie'는 'les laboratoires ROCHE n'avaient pas mis à disposition leur nouveau médicament anti sida, le T 20'을 전제한다. 즉, 전제 차원으로 'Roche사에서 새로운 에이즈 치료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정보가 전달되는 동시에 명제 차원으로, '그런데 만약 치료제를 공급하였다면, 이 환자는 아직 살아있었을 것' 이라는 정보를 전달한다.

전제유발자 반사실적 조건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전제와 명제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가감 없이 명제 차원으로 전달하려면 문구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Roche n'avaient pas mis à disposition leur nouveau médicament anti sida, le T 20. Donc ce malade est mort.' 이

는 Roche사가 치료제를 보급하지 않았다는 정보와 그래서 이 환자가 죽었다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할 뿐, 환자의 죽음에 대한 감정이나, Roche사에 대한 원망을 담고 있지는 않다. 광고주는 Roche사에 대한 분노와 사망한 환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환자에 대한 예의를 보이고자 조건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사실적 조건절은 강한 전제 유발자이다. Roche사가 AIDS 치료제를 보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취소될 수 없는 전제로 만들기 위해 바사실적 조건절을 전제유발자로 사용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분노를 충분히 표현하면서도 이미지 속 환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저 정보전달하듯 가볍게 논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주는 강한 전제로 사실을 전달하되, 조건절의 사용으로 안타까움을 더하면서 독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 3.1.2. 약한 전제유발자가 사용된 광고

[ 사진 4 ] 약한 전제유발자가 사용된 광고 1

| | |
|---|---|
| 광고 문구 | ***Découvrez*** un monde de plaisir et de raffinement<br>***Découvrez*** le Haut de Gamme de Renault sur renault.fr/haut-de-gamme |
| 사용된 전제유발자 | 사실성 (인지) Découvrir동사 |
| (명제 1) ***Découvrez*** un monde de plaisir et de raffinement<br>(전제 1) Il y a un monde de plaisir et de raffinement. | |
| (명제 2) ***Découvrez*** le Haut de Gamme de Renault sur renault.fr/haut-de-gamme<br>(전제 2) Il y a le Haut de Game de Renault sur le site. | |

< 표 9 > [ 사진 4 ] 광고 문구 정리

위 광고는 프랑스 자동차 회사 Renault의 지면광고이다. 표제 문구에는 'Le Haut de Gamme de Renault, Maîtrisez votre trajectoire'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로는 세 대의 자동차가 있다. 그 밑으로는 'Initiale Paris : Découvrez un monde de plaisir et de raffinement'이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Découvrez le Haut de Gamme de Renault sur renault.fr/haut-de-gamme'로 이어지고, 아래의 작은 글씨로는 CO2배기량과 같은 Renault의 하이엔드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다.

이는 Renault회사에서 나온 하이엔드 자동차 모델 Initiale를 선전하는 광고이다. 위 광고에서는 약한 전제유발자인 인지적 사실동사 découvrir가 사용되었다. 아래 부분에 나타나는 문구 'Initiale Paris : Découvrez un monde de plaisir et de raffinement'에서 사실동사 découvrir동사는 'un monde de plaisir et de raffinement'의 존재를 전제한다. 그런데 découvrir동사는 상대적으로 약한 전제유발자이므로, 이 전제는 문맥에 따라 유보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즉, 광고에서 사용된 découvrir동사가 유발하는 전제는 문맥에 따라 유효여부가 달라진다. 'un monde de

plaisir et de raffinement'이 존재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여기서의 문맥이란, 소비자가 형성하게 된다.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이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 본다면 이 전제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지만, 구매하지 않는다면 전제된 내용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 즉,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그 전제에 해당하는 정보를 경험하게끔 소비를 유도한다. 위 광고의 경우, 소비자의 직접적인 개입을 요구하면서 당신이 Renault의 haut de gamme INITIALE을 탄다면, 즐겁고 세련된 세상을 맛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맛보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런데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나 질책하진 않는다. 그저 선택했을 때의 장점을 제시하는 느낌을 주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 사진 5 ] [ 사진 6 ] 약한 전제유발자가 사용된 광고 2, 3

| | |
|---|---|
| 광고 문구 | ***Profitez*** de blockbusters et de séries inédites.<br>***Profitez*** de 50% de réduction sur steam et nintendo switch. |
| 사용된<br>전제유발자 | 사실성 (인지) Profiter동사 |

| |
|---|
| (명제) ***Profitez*** de blockbusters et de séries inédites.<br>(전제) Il y a des blockbusters et des séries inédites.<br>(명제) ***Profitez*** de 50% de réduction sur steam et nintendo switch.<br>(전제) Il y a 50% de réduction sur steam et nintendo switch.. |

< 표 10 > [ 사진 5 ] [ 사진 6 ] 광고 문구 정리

위 두 광고는 앞선 Renault 자동차 광고와 마찬가지로 약한 전제유발자가 사용된 어플리케이션 OCS와 스포츠 인터랙티브사의 축구 게임 FM 19의 광고이다.

우선, 왼쪽의 광고를 살펴보면, 왼쪽 상단에 'Profitez de blockbusters et de séries inédites'라는 문구가 보인다. 전제유발자인 사실동사 profiter에 의해 'les blockbusters et les séries inédites'의 존재가 전제된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광고 문구에 사용된 profiter동사도 뒤이어 제시되는 '50% de réduction sur steam et nintendo switch'의 사실성을 전제하게 된다. 다만, 인지를 나타내는 사실성은 약한 전제유발자이기 때문에 문맥에 의한 취소가 비교적 용이하다. 앞선 자동차 광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문맥은 소비자의 소비 여부가 결정한다. 즉, '블록버스터와 미방영 시리즈들'과 'Steam 과 Nintendo에서의 50%할인'이 어딘가에 존재하지만, 그것이 소비자에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자신이 이 상품을 구매해야만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Renault, OCS, 그리고 FM 19의 상업광고로부터 광고주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장점을 소비자에게 약한 전제로 전달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그 장점을 소비를 통해 직접 쟁취하도록 하는 효과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 3.1.3. 다양한 전제유발자가 사용된 광고

[ 사진 7 ] 다양한 전제유발자가 사용된 광고 1

| | |
|---|---|
| 광고 문구 | ***Découvrez*** tout ***votre*** potentiel. |
| 사용된 전제유발자 | 사실성 (인지) Découvrir동사, 소유 형용사 votre |
| (명제 1) ***Découvrez*** tout votre potentiel.<br>(전제 1) Il y a tout votre potentiel.<br>(전제 2) Il y a votre potentiel. | |

< 표 11 > [ 사진 7 ] 광고 문구 정리

위 광고는 프랑스 금융 기관 Crédit Agricole의 광고이다. 한 남자가 만족스럽다는 듯 활짝 웃고 있으며 표제 문구 '***Découvrez*** tout ***votre*** potentiel'와 함께 광고의 오른쪽 아래에는 'Trajectoires Patrimoine'라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다. 이는 Crédit Agricole에서 고객들에게 1유로부터라도 최적의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표제 문구에는 강한 전제 유발자인 소유 형용사 votre와 약한 전제 유발자인 인지적 사실동사 découvrir가 사용되었다. 사실 동사와 소유 형용사 모두 기술하는 내용, 또는 수식하는 명사의 존재를 전제한다. 이 경우, découvrir동사는 'tout votre potentiel'을 전제하고, 소유 형용사 votre는 'potentiel'을 전제한다.

약한 전제유발자의 사용으로 먼저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광고주는 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의 장점을 découvir동사와 함께 제시할 뿐이다 .즉, 이 서비스 이용 시, 당신의 잠재력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지만 그 선택 여부는 순전히 소비자에게 있는 것이다. 강한 전제유발자 votre의 사용은 수식하는 potentiel의 존재가 맥락에 좌우되지 않고 굳건하다는 점을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즉, 독자의 잠재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서비스를 통해 그 잠재력을 찾아내야 한다고 피력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광고주는 약한 전제유발자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면서 강한 전제유발자를 통해 해당 서비스의 장점을 다시금 사실로 전제한다. 두 종류의 유발자는 광고주의 의도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통해 독자의 소비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 사진 8 ] 다양한 전제유발자가 사용된 광고 2

| | |
|---|---|
| 광고 문구 | Connaissez-vous votre peau*?*<br>Avez-vous une peau sèche, très sèche, irritée ou atopique*?*<br>***C'est*** dans la peau ***que*** Bioderma a trouvé la solution pour ***reconstruire*** sa barrière protectrice. Durablement. |
| 사용된 전제유발자 | oui/non의문문, 선택형 의문문, 분열 강조구문, 반복성, 사실성(인지) |
| (명제 1) ***Connaissez-vous votre peau?***<br>(전제 1) Soit vous connaissez votre peau ou pas | |
| (명제 2) ***Avez-vous une peau sèche, très sèche, irritée ou atopique?***<br>(전제 2) Vous avez soit une peau sèche, très sèche, ou irritée ou atopique | |
| (명제 3) ***C'est*** dans la peau ***que*** Bioderma a trouvé la ***solution*** pour ***reconstruire*** sa barrière protectrice.<br>(전제 3) - Bioderma a trouvé la solution pour reconstruire sa barrière protectrice quelque part. | |

| |
|---|
| - La peau a construit sa barrière protectrice au début, mais il manque de barrière protectrice maintenant.<br>- Il y a un problème. |

< 표 12 > [ 사진 8 ] 광고 문구 정리

위 광고는 2018년 3월자 Top Santé 잡지의 Bioderma사의 피부 제품 지면 광고이다. 가장 윗부분에는 의문문으로 이루어진 문구가 제시되어 있으며, 아래에는 분열 강조 구문과 함께 반복성 어휘 reconstruire가 사용되었다. 두 가지 전제유발자가 사용되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서로 어우러지며 어떠한 담화효과를 창출하는지 보겠다.

우선, 광고 왼편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이 제시되어 있다. 'Connaissez-vous votre peau?'는 oui/non으로 대답하는 의문문이며, 'Avez-vous une peau sèche, très sèche, irritée ou atopique?'는 선택형 의문문으로 둘 다 구문을 통해 전제를 유발하는 약한 전제유발자이다. 먼저, oui/non 의문문에 의해 전제되는 내용은 당연하게도 'Soit vous connaissez votre peau ou pas'이고, 선택형 의문문에 의해 전제된 내용은 'vous avez soit une peau sèche, très sèche, ou irritée ou atopique'라 할 수 있다. 소비자의 피부 상태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특히 소비자의 피부가 건조한지, 예민한지, 아토피 피부인지 물어보는 것은 자칫 소비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피부 상태를 파악하는 책임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광고주가 다음과 같이ㅣ 독자의 피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단언한다면 가정해보자. 'Vous avez une peau sèche, très sèche, irritée ou atopique.' 설령 광고를 접한 독자의 피부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는 소비자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단언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의문문으로 제시하면서 예민할 수 있는 내용을 전제 차원으로 전달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언제든지 맥락에 의해 비교적 쉽게 취소될 수 있는 전제유발자인 의문문을 사용하여 광고주는 예민한 사항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질문을 제시한 후 광고의 아래 부분에는 자사의 제품을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제시한다.

다음은 광고 아래에 위치한 문구를 살펴보겠다. 해당 문구에는 분열 강조 구문이 사용되었고 그 안에 반복성 어휘가 사용되어 여러 층위의 전제를 유발한다. 우선, 분열 강조 구문에 의해 'Bioderma a trouvé la solution pour recontruire la barriere protectrice quelque part'라는 전제가 강하게 유발되며, Bioderma사는 그 해결책을 피부에서 찾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명시적인 정보로 전달한다. 그리고 분열 구문 안에 사용된 반복성 어휘 reconstruire는 '재건하다'의 의미로, 반복성의 의미를 지닌 접두사 re-로 인해 의미적으로 '예전에 construire했었다'라는 전제를 유발한다. 이는 함축 어휘 solution에 의해 유발되는 '문제가 있다'는 전제와 함께 어우러지며 '현재는 재건이 필요한 불완전한 상태'라는 통일된 맥락의 전제를 형성한다.

광고 문구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 문구에서 이미 피부 상태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해당 제품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는 피부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광고주는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피부 상태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에게 맡기며 소비자를 존중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를 통해 광고주는 독자의 범위를 좁혔고, 이제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자사의 제품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언어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더 이상 전제에 유보가능성을 남길 필요 없이, 제품의 장점을 강하게 제시한다는 것이다. 분열 구문의 사용은 Bioderma사가 해결책을 찾았다는 사실을 취소가 불가한 강한 전제로 제시함으로써 자사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예전에 이미 피부보호막이 형성되었었다'는 내용을 강하게 전제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그 복원을 돕는다는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광고주는 소비자의 피부상태에 대한 존중을 최대한 표하되, 제품 또는 회사의 강점은 강한 전제유발자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2. 강한 전제유발자와 약한 전제유발자의 담화효과

지금까지 강한 전제유발자와 약한 전제유발자가 각각 광고 언어에서 어떠한 담화 효과를 창출하여 광고주의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설득하는지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 강한 전제유발자의 사용 | **확정적 전제 유발**<br>-전제 내용을 객관적·절대적으로 제시<br>-전제 내용에 대한 신뢰감 제공<br>-전제의 내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 |
| 약한 전제유발자의 사용 | **선택적 전제 유발**<br>-장점을 부각하여 소비자의 자발적 소비 유도<br>-소비자 선택 존중<br>-부정적 효과에 대한 반감 줄이기 |

< 표 13 > 전제유발자 담화효과 분석

강한 전제유발자는 취소가 불가한 강력한 확정적 전제를 유발한다. 즉, 강한 전제유발자의 사용은, 그 전제에 반하는 어떠한 상황이나 문맥이 주어져도 전제는 공격받지 못하므로, 해당 전제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자신감 있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강한 전제유발자로 유발되는 전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광고 업체 쪽에서 지게 되며, 독자는 그저 광고주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강력하게 전달 받게 된다. 그 결과 독자는 강한 전제유발자에 의해 전달된 전제정보를 객관적인 사실인 양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강하게 메시지를 전

달해야 하는 공익광고에서 강한 전제유발자를 사용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반면, 약한 전제유발자는 상대적으로 문맥이나 상황의 영향을 받으며 유보, 취소의 가능성이 높다. 선택적 전제를 유발하는데, 소비자의 구매 여부가 상황을 구성하며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한다면 전제된 내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을 주게 된다. 따라서 광고주는 약한 전제유발자의 사용을 통해 제품의 구매의 이득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며 참여를 유도하면서 전제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다시 말해, 약한 전제 유발자의 사용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점을 전제로서 제시는 하지만, 소비자로 하여금 전제된 정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구매를 해야 한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주는 효과를 지닌다. 이 때, 전제되는 내용이 항상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점인 것만은 아니다. 자칫 소비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예민한 내용일 경우에도 광고주는 약한 전제유발자를 사용하여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리하자면, 약한 전제 유발자의 사용은 소비자의 참여를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유도하며,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전제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담화 효과를 지닌다.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약한 전제 유발자라고 해서 약한 광고 담화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강한 전제유발자나 약한 전제유발자가 소비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창출하는 담화 효과에서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모두 소비자를 설득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겠다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다는 점이다.

전제 효과는 광고주의 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빈번하게 쓰인다. 강한 전제 유발자와 약한 전제유발자는 광고 속에서 창출하는 담화 효과가 사뭇 다르지만, 이 둘은 한 광고에서 서로 상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전제 정보를 형성한다.

# Ⅳ. 결론

지금까지 전제유발자의 유형을 바탕으로 유발하는 전제의 강도에 따라 강한 전제유발자와 약한 전제유발자로 분류하고 이들이 광고에서 창출하는 담화 효과를 기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전제의 개념과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 소개하고, 전제 연구의 큰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의미론적 관점과 화용론적 관점에 입각한 선행 연구의 쟁점을 검토하였다. 전제 현상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제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다양한 전제유발자를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전제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어휘의 의미 속성에 의해 유발되기도(어휘 의미), 의미가 결여된 통사 구문에 의해 유발되기도(문법 의미)하며 발화 상황에서의 맥락에 의해 유발(화용 의미)되기도 한다. 전제 유발 요인을 어휘 유발자와 구문 유발자로 유형화하여 각각의 범주에 어떠한 유발자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어휘 유발자에는 반복성, 인지, 감정, 판단을 나타내는 사실성, 상태변화, 비교의 의미 속성을 지닌 어휘가 속했고, 구문 유발자에는 한정 또는 수식 구문, 분열 강조 구문, 반사실적 조건절, 시간절, 관계절, 의문문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발자가 유발하는 전제의 강도를 기준으로 각각의 전제유발자를 강한 전제유발자와 약한 전제유발자로 분석 및 재분류하였다. 이를 앞선 유형화의 결과와 교차적으로 분석하여 전제유발자의 유형과 강도의 상관관계를 살피었다. 구문 유발자의 경우, 어휘 유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강한 전제유발자의 성격을 띠는 양상을 보이긴 하였으나, 두 유형 모두 약한 유발자와 강한 유발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취소 가능성에 있어서 전제 유발자가 보이는 차이는 실제 담화에서 사용되었을 때 창출하는 담화효과에서도 드러났다. 다만 이는 효과의 강도 차이가 아닌, 각각 다른 유형의 담화효과를 창출한다는 의미이다. 강한 전제유발자와 약한 전제유발자가 사용된 광고 문구를 각각 분석해보니,

강한 전제유발자의 사용은 취소 불가한 전제를 유발하는 만큼 광고주의 책임 하에 확정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느낌을 주는 반면, 약한 전제유발자의 경우, 전제된 내용이 비교적 쉽게 유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형성하는 맥락, 즉, 제품을 구매 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제의 효력이 좌우되는 효과를 보였다. 다시 말해, 광고주는 강한 유발자를 사용함으로써 전제 내용을 소비자에게 이미 기정사실인 양 전달하였고, 약한 유발자를 사용하면서는 전제 내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소비자의 선택에 더 중점을 두는 느낌이 강했다. 강하고 약한 유발자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 유도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상보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물론 본고에서 전제 유발자의 강도에 따른 분류 기준으로 'Explicit Ignorance Context'를 채택하여 적용하기는 했으나 분류를 더 확실하게 해주는 다른 다양한 장치들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또한, 해당 분류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엄밀한 분석도 후속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전제유발자의 유형과 강도에 따른 분류를 시행하고, 이제까지 이론적으로 연구되어온 전제유발자를 광고라는 구체적인 대상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전제 연구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다.

# 참 고 문 헌


Abrusán, M. 2011. Predicting the presuppositions of soft triggers. *Linguistics and Philosophy* 34(6), 491-535.

Abrusán, M. 2016. Presupposition cancellation : explaining the 'soft-hard' trigger distinction. *Natural Language Semantics.*

Abusch, D. 2002. Lexical alternatives as a source of pragmatic presuppositions. In B. Jackson (ed.), *Proceedings of SALT* 12, 1-19. Ithaca, NY:CLC Publications.

Abusch, D. 2005. Triggering from alternative sets and projection of pragmatic presuppositions, Cornell University. Available at http://semanticsarchive.net/Archive/jJkYjM3O/Abusch-Triggering.pdf.

Abusch, D. 2010. Presupposition triggering from alternatives. *Journal of Semantics* 27(1), 37-80.

Beaver, D. 1995. *Presuppositions and Assertions in Dynamic Semantic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Edinburgh, Edinburgh.

Charaudeau, P. 1983. *Langage et discours : Éléments de sémiolinguistique*(Théorie et pratique). Paris: Hachette.

Chierchia, G. & McConnell-Ginet, S. 2000. *Meaning and grammar: An introduction to semantics.* Cambridge, MA: MIT Press.

Ducrot, O. 1968. La description sémantique des énoncés français et la notion de présupposition. *L'Homme, tome* 8 n°1, 37-53.

Ducrot, O. 1969. Présupposés et sous-entendus. *Langue française n°4, La sémantique,* 30-43

Ducrot, O. 1984. *Le Dire et le dit*, Paris, Harmattan,

Frege, G. 1975. *On Sense and Reference*. In Davidson & Harman. (eds). p.116-128

Gazdar, G. 1979. P*ragmatics: Implicature, presupposition and logical form*. New York: Academic Press.

Grice, H.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eter Cole & Jerry L.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3, 41-58, New York: Academic Press.

Heim, I. 1983. On the projection problem for presuppositions. In Barlow, M., Flickinger, D. & Wescoat, M. (eds.), *Proceedings of WCCFL II*. CSLI, 397-405, Stanford University.

Heim, I. 1983. Presupposition projection and the semantics of attitude verbs. *Journal of Semantics* 9, 183-221.

Horn, L. 1986, Presupposition, theme and variations. Chicago Linguistic Society.

Huang, Y. 2006. *Pragma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이혜윤 역, 2009, 『화용론』, 한국외국어대출판부)

Jayez, J., Valeria, M., Anne, R. & van der Henst, J.B. 2014. Weak and strong triggers. In Florian Schwarz (ed.), *Experimental Perspectives on Presuppositions*, 173-194. Berlin:Springer.

Karttunen, L. 1973. Presuppositions of compound sentences. In *Linguistic Inquiry* 4, 169-193.

Karttunen, L. 1974. Presuppositions and linguistic context. *Theoretical Linguistics* 1, 181-194.

Kerbrat-Orecchioni, C. 1986. *L'implicite.* Paris, Armand Colin.

Kiparsky, P. & Kiparsky, C. 1971. *Fact.* In D. Steinberg and L.Jakobovits. (eds.) *Semantics : An Interdisciplinary*

*Reader in Philosophy Linguistics and Psychology.* 345-369.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 Draoulec, A. 2006. De la subordination à la connexion temporelle, *Les connecteurs temporels du français.* Cahiers Chronos, 39-62.

Levinson, S.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oeschler, J. & Reboul, A. 1994. *Dictionnaire Encyclopédique de pragmatique*, Paris, Seuil. (최재호·홍종화·김종을 공역. 2004. 『화용론 백과사전』, 한국문화사)

Nølke, H. 1994. *Linguistique modulaire : de la forme au sens.* Paris: Peters.

Romoli, J. 2012. *Soft but strong. Neg-raising, Soft Triggers, and Exhaustification.*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Romoli, J. 2015. The presuppositions of soft triggers are obligatory scalar implicatures. *Journal of Semantics* 32(2), 173-219.

Russell, B. 1905. *On denoting*. Mind 14. 479-193.

Schwarz, F. 2014. Presuppositions are fast, whether hard or soft-Evidence from the visual world paradigm. In *Proceedings of SALT* 24, S.D. Todd Snider & M.Weigand (eds.). Washington DC: LSA.

Schwarz. F. 2014. *Experimental Perspectives on Presuppositions.* Berlin: Springer.

Simons, M. 2001. On the conversational basis of some presuppositions. In *Proceedings of SALT* 11, R. Hastings, B. Jackson, & Z. Zvolenszky (eds.), 431-448. Ithaca, NY: CLC Publications.

Stalnaker, R.C. 1974. Pragmatic presuppositions. In *Semantics and philosophy*: Essays, M. Munitz & P.Unger (eds.), 197-214.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van der Sandt, R. 1992. Presupposition projection as anaphora resolution. *Journal of Semantics 9*, 333-377.

Verschueren, J. & Östman, J. 2009. *Key notions for pragmatics*.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Wright, S, K. 2002. Transitivity and Change of State Verbs.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339-350.

Yule, G. 1996. *Pragma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Zeevat, H. 2003. Particles: Presupposition triggers, context markers or speech act markers. In *Optimality theory and pragmatics,* R. Blutner & H. Zeevat (eds.), 91-111. New York: Palgrave Macmillan.

박정섭, 2011, 「프랑스어 분열구문과 한국어 의사분열구문의 비교: 의미-화용론적 관점에서」, 『프랑스어문교육』 제 36권, pp. 205-230.

이성헌, 2001, Les classes d'objets d'événements. Pour une typologie sémantique des noms prédicatifs d'événement en français, thèse de doctorat, LLI, Univ. Paris 13.

최윤선, 2013, 「전제를 이용한 광고의 현실 재구성 전략」, 『불어불문학연구』 제 95권, pp. 485-507.

최재호, 1995, 「전제의 기능과 특성」, 『불어불문학연구』 제 30권 2호, 한국불어불문학회, pp.1103-1117.

Résumé

# L'étude sur les déclencheurs de la présupposition:

## l'effet du discours des déclencheurs forts et faibles de la présupposition

HYUNKYUNG JEEN
Département de langue et de littérature françaises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La présente étude a pour but de classifier les déclencheurs de la présupposition en déclencheur fort et en déclencheur faible, en fonction de ses forces, et de décrire les effets du discours distincts, en analysant les textes publicitaires.

Pour ce faire, tout d'abord, nous examinons les études existantes sur la présupposition et ses déclencheurs et justifions la nécessité d'une étude sur la force des déclencheurs. Selon les éléments qui déclenchent les présuppositions, les déclencheurs sont classifiés en déclencheur d'attributs sémantiques ou en déclencheur syntaxiques. En fonction de cette distinction, nous classifions ces déclencheurs suivant leur force déclenchante, donc en déclencheur fort et déclencheur faible, en prenant en compte le Contexte d'Ignorance Explicite comme critère de classification. Ensuite, nous montrons la corrélation entre le type et la force des déclencheurs en notant que les déclencheurs syntaxiques sont principalement déclenchés par les déclencheurs forts de la présupposition.

Enfin, après avoir élaboré une certaine hypothèse sur les différents effets du discours apportés suivant la différence de force déclenchante de la présupposition dans les messages publicitaires, nous montrons

comment ces déclencheurs constituent, de manière complémentaire, ces messages. L'usage des déclencheurs forts de la présupposition déclenche une présupposition décisive qui donne confiance aux consommateurs en transmettant le message objectivement sous l'engagement de l'annonceur. En revanche, les déclencheurs faibles donne lieu à une présupposition sélective, supposant le respect du choix des consommateurs et les incitant leur participation volontaire à la consommation.

Mots-clé : déclencheur de la présupposition, force de déclencheur de la présupposition, déclencheur fort & faible de la présupposition, effet du discours
Numéro d'étudiant : 2017-28941